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한미 협력단체인 매스대구로보틱스 9일 시포트소재 폴리 호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창호 회장(사진 좌측 단상)의 건배 제의에 참가자들이 건배를 외치고 있다



## 122회 보스톤마라톤 한국 선수 50명 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패 트리어즈데이에 열리는 제 122회 보스톤마라 톤에는 한국 국적의 선수가 총 50명 참가한다 . 한국에서 참가한 선수는 총 41명 나머지는 미주 전역에서 참가하는 한국 국적 선수들이 다. 이 중 대부분이 남성 참가자들이며 여성 참가자들도 15명에 달한다.

122회 보스톤마라톤에는 총 3만여명이 참 가한다. 해마다 약 1백만여명의 보스톤 주민 들이 거리로 나서 참가 선수들을 응원한다. 1,500명의 보스톤 경찰과 450명의 주경찰이 보스톤마라톤에 배치되 >>8면으로 계속

## 한국로봇산업계 매사추세츠와 협력 단체 설립

### 비영리단체 매스대구로보틱스 설립해 상호 협력기로 올 가을 대구서 매스대구로보틱스 전시회 개최 계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 국 대구경북 로봇산업과 매사추세츠의 로봇산 업이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단체 매스대구로보 틱스(Mass&Daegu Robotics)를 설립했다.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대구시 등 한국로봇

기업인 50여명은 4월 9일 보스톤을 방문 시포 트 소재 폴리 호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스로 보틱스, 매사추세츠투자무역청(MOITI, 이하 모이티), 매스테크, 보스톤시, 보스톤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스대구로보틱스

출범식을 가졌다.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를 주축으로 한 대구 경북지역 로봇기업인들은 지난 2010년부터 보 스톤을 방문 상호협력을 타진해왔다. 2012년 매스테크리더십협회(MassTLC)와 양해각서 를 체결하는 단계를 거쳐 상호 협력의 거점이 되는 협력체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매스대구로보틱스는 매사추세츠 벌링톤에 위치하며 김창호, 우종현,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Weekly Special

보스톤 출발-인천행  
왕복항공권 최저가  
\$1070~

상당문의  
(617) 424-8956  
(866) 619-4223

www.ice-travel.com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KBS, MBC, SBS, O365 Plus, tvN, XBS, O365, O365, O365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ENGEL & VÖLKERS**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 덴고 경이적 모금액 글로벌도 경악

### 2018년 1/4분기 동안 90만불 모금, 선거본부 출범후 무려 2백50만불 모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 제3지역구 연방하원직에 출마한 다니얼 고 후보(33)가 기록적인 선거자금 모금으로 보스톤글로벌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고 후보측은 4월 9일 월요일 이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1월, 2월 3월 3개월동안 무려 \$911,000의 선거자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덴고 후보는 지난해 9월 출마 선언 이후 총 3천3백명의 기부자로부터 총 2백50만불의 자금을 모금했다. 모금액의 97%는 예비선거 경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목했다.

덴고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기간동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분들께 감사한다. 현재 우리는 100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고 전화하며 주민들과 대화하는 선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3지역구 전체에 강한 풀뿌리조직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덴고의 선거자금 모금은 여성 사업가 로리 트래헨, 전 덴마크 대사 루퍼스 기포드, 사업가비즈다스, 주상원의원 엘탈리언, 그리고 주 하원의원 주아나 마티어스 등 주요 후보와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는 커다란 무기로 작용하게



덴고는 그의 부인과 앤도버에서 헤이버 힐까지 달리기를 통해 모금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글로벌은 지난 주 덴고 후보가 보스톤시 전 비서실장이란 지위의 도움을 받아 많은 보스톤의 건설업체, 변호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지적했었다. 보스톤글로벌은 기부 후 건축허가, 대표 변호사 고용 등의 수혜가 일치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공할만한 선거자금 모금 능력을 보이자 보스톤글로벌은 필립스 아카데미 졸업, 하버드 학부 및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졸업 등의 부유한 학맥과 허핑턴포스트의 아리아나 허핑턴 대표와의 인맥 등을 통해 자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자세한 선거자금 기부자 명단 및 선거자금 사용처 내역은 4월 15일 연방 선거위원의 1/4분기 보고서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덴고 후보는 후보 자격에 필요한 2천 서명지를 가장 빨리 모아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11개 노조의 지지를 획득했다. 또한 멧두은 시 의회 제니퍼 카나안의 장, 말보로시 에드 클랜시 의원 등의 지지도 획득했다.

민주당 후보 경선인 예비선거는 9월 4일 레이버데이 바로 다음날 열리게 된다. hsb@bostonkorea.com

# 한인들 당뇨발병 수치가 가장 높다

### 하워드고 하버드 보건대학원 교수 아시아인 아메리칸 당뇨건강 강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의 발병률은 2중 1명 꼴이며 그중 한인들의 발병율이 가장 높다고 하워드고 하버드 보건대학원 교수가 밝혔다.

조슬린 당뇨센터가 4월 9일 개최한 (아시아인;임상적 공중보건차원)이라는 주제의 워싱턴 강연에서 하워드고 교수는 2000년대 초까지도 당뇨연구와 치료 분야에서 아시아인들을 “Others” 라는 추상적 항목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던 사실을 소개하고 이후 지속적인 계몽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아시아인들도 여러국가 민족으로 세분화하여 당뇨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한미정치혁신장연대 김성혁 대표는 “아시아인들의 대부분이 제2당뇨에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히 우리 한인들의 당뇨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 수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스톤 소재 조슬린 당뇨센터는



하버드 보건대학원 교수인 하워드고 교수

당뇨연구와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체계적 연구가 잘 진행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인들의 경우 BMI 지수 23에서 당뇨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미 전국적인 “스크린앳2” 운동을 하버드메디컬센터 등과 함께 벌였다.

같은 날 저녁 6시 부터는 보스톤 뮤지엄에서 300여명의 주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Taste of Ginger” 행사를 개최하고 Joslin 당뇨 연구기금 모금 음식 축제를 진행하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내년엔 생강맛 좀 봅시다

'A Taste of Ginger' 30여 유명 셰프 참여 성황, 한인은 썰렁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명술 기자 = 맛있었지만 '생강 맛' 이 생각보다 매웠다. 'A Taste of Ginger' 즉 생강 맛보기는 많은 한인들에게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해마다 이때 즈음이면 한번정도는 신문지상을 통해 접했을 것이다.

당뇨병 환자가 유난히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당뇨병을 알리고 연구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가 '생강 맛보기' 다. 여기까지 들으면 관심이 반쯤은 접었고 벌써 기사에서 눈을 떠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내거는 심각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꺼내기로 하고 다시 진정한 '생강 맛' 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눈치 빠른 독자는 벌써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지만 이 행사는 먹자판이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기금모금 연말 파티가 아니면 이처럼 좋은 음식을 접하기 힘든 먹자판이다. 진행되는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다.

장소는 보스턴미술관(MFA). 보스턴의 유명한 레스토랑이 부스를 차려 셰프의 '필살기' 를 한 입에 먹기 좋을 만큼의 작은 양으로 놓는다. 음식을 원하는 사람은 음식을 그냥 집어 먹으면 된다. 먹은 빈 스푼 또는 컵을 들고 있기가 멋적을 만큼의 시간이 되기 전 빈음식을 담아 나르는 서버가 어느새 곁에서 쟁반을 내민다. 스푼을 치웠다면 또다른 음식을 집어들어 먹으면 된다

음식만 먹기에 허전하다면 중간의 바(Bar)로 발걸음을 돌린다. 오픈 바이니 편하게 원하는 음료를 주문하면 된다. 늘 하듯 캐버네이(Cabernet)를 주문했다. 마시면 바로 또 따라 주긴 줄도 없다. 바텐더도 정말 많다. 마신 술잔은 바에 두어도 되고 서버의 쟁반에 두면 된다.

보스턴 최고의 레스토랑 셰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ohnny Ngo (Banyan Bar + Refuge), Joanne Chang (Flour Bakery), Karen Akunowicz (Myers+Chang), Jason Tom (Night Market), Tracy Chang (PAGU), James Salomone (Parsnip), Jasper White (Summer Shack), Andy Husbands (The Smoke Shop). 이외에도 수많은 업체들이 준비하다. 이미 만들어진 음식이라 셰프도 여유가 있어 잘 설명해 준다. 아시아인이 중심이 돼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 아시아 레스토랑이 더 많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음식은 티벳 생선스프, 토로스시, 상어알을 얹은 사시미 등.

음악도 좋다. 참가한 여러 사람들과 만나네트워킹 할 수도 있다. 많은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부스를 돌아다녀야 하므로 소화에 걱정이 없다. 약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났다. 여러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어 좋았다.



2018 조슬린당뇨센터의 '생강맛보기'행사가 9일 보스턴미술관에서 열렸다. 약 500여명의 참가해 30여 유명 셰프의 음식과 술을 즐겼다

이쯤되면 슬그머니 마음속으로 묻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음식에 술이라면...티켓값이 좀 있겠구나라고 빙고다. \$250, 두사람이라면 \$500이다. 한번 가볼까 했던 사람도 멈춰서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의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한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아시아인 당뇨를 연구하고 홍보하는 조슬린 당뇨센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당뇨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당뇨는 아시아인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많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 성인중 2명 중의 1명이 당뇨에 걸린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곳이 조슬린 당뇨센터다. 주위에 누군가는 이 센터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도.

올해 2018 생강맛보기 행사의 주최인이었던 레버렛 워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당뇨로 쓰러진 이후 조슬린 센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가 33만불을 모으는 거였다. 그러니 하룻밤 최고의 음식과 술과 음악과 그

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기부까지 \$250 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주위를 보면 대부분이 중국계인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자여도 이렇게 돈을 쓰는 방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적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다. 만난 한국인은 손에 꼽는다. 이경혜 시민협회장, 김성혁 전 평통회장, 샘햄 로버트 들리오 매스주 하원의장 보좌관, 그리고 행사 사회를 맡은 크리스티 리 NBC 보스턴 앵커, 태권도 시범을 보인 김재훈 태권도 관원들 정도다. 이경혜 시민협회장은 "한국 식당 참가업체가 하나도 없다" 며 아쉬워했다.

4월 9일 월요일이라 과음할 수는 없었다. 텅텅한 입맛을 되돌리려 마지막으로 생강으로 입맛을 씻어냈다. 행사는 달콤했지만 아직 이런 행사에서 한인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은 매운 뒷맛으로 남았다. 여러분 내년엔 개운한 생강 맛좀 봅시다.

editor@bostonkorea.com

SA+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 SAT Plus Spril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Class	Time	
SAT II / MATH IIC Prep	9:00 AM - 11:00 AM	3/17/18 - 5/26/18 Sat
Chemistry AP/ SAT II Prep	1:00 PM - 3:00 PM	3/17/18 - 5/26/18
Biology AP/ SAT II Prep	3:30 PM - 5:30 PM	3/17/18 - 5/26/18
SAT II / MATH IC Prep	6:00 PM - 8:00 PM	3/24/18 - 5/26/18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July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9/18 - 7/27/18 Mon-Fri
Biology Preview	1:00 PM - 3:00 PM	7/9/18 - 7/30/18 Mon/Wed/Fri
Chemistry Preview	4:00 PM - 6:00 PM	7/9/18 - 7/30/18 Mon/Wed/Fri

August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6 - 8/24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8/6 - 8/24 Mon-Fri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Forte New York Chamber Music 보스톤 공연

##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이트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콘서트를 제공하고 있는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이트 (Oasis Café Music Night)가 오는 4월 22일 일요일 오후에 피아노 3중주 공연을 선보인다.

뉴욕 지역 포르테뉴욕실내악단(Forte New York Chamber Music)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진씨와 피아니스트 임효진씨가 보스톤 지역 첼리스트 배유미씨와 함께 실내악 애호가들에게 무료공연을 선사하게 된다.

베토벤, 브람스, 무진스키, 쇤필드, 브리지 등의 고전음악에서 현대음악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지는 이번 공연에서 피아노 트리오를 통한 시대별

클래식 음악 감상의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오아시스 카페 뮤직 공연은 보스톤 한인교회 국내선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공연 후 연주자들과 관객들의 소통을 위해 간단한 리셉션 자리가 마련된다.

일시: 2018년 4월 22일 토요일 오후 5:30  
장소: 교육문화센터 (Education & Community Center)  
The Korean Church of Boston  
32 Harvard St., Brookline, MA  
문의: 617-739-2663,  
ecckcb@gmail.com, www.ecckcb.org  
bostonkorean@hotmail.com

# 위안부를 생각했던 가곡과 영화의 밤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가곡예술협회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주제로한 연례 콘서트의 피날레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콘서트 1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고향의 그리움과 평화의 가곡을 연주했다. 특히 여성 출연자들이 흰색 저고리 검정색 한복을 입고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협회측은 한복을 교복으로 채택한 일본의 한인 동포 학생들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모든 공연자들이 한복을 입고 공연에 나섰다 밝혔다.

보스톤가곡예술협회의 임서연 대표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한복을 입고 공연한 것을 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명이라도 본다

면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고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콘서트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귀향이 상영됐다. 말로만 들었던 위안부들의 피해를 낱낱이 고발한 이 영화를 통해 이들이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졌는지 알리는 계기도 되었다.

임서연 대표는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여러 명의 익명의 지지자들이 도움을 줬고 모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일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점이 또다른 이번 공연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가곡예술협회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주제로한 연례 콘서트의 피날레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세계 No.1 홍삼브랜드 정관장

저온숙성방식 도입으로 유효성분 강화 및 맛/향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정관장 新홍삼정

### Special Promotion

신물제품 소진시 프로모션이 종료됩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FREE  
\$30 상당 증정

FREE  
\$70 상당 증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천녹정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903

# 2018 뉴잉글랜드 과기협 수학경시대회 성료

구분주(11년), 최수영, 브라이언박(10년) 총영사상 한국학교협의회 글짓기 대회와 중복 참가 저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 27회 뉴잉글랜드 과기협 주최 수학 경시대회가 4월 7일 토요일 MIT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약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시험에 응했다.

재미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 (이하 과기협) 와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NAKS-NE),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미주 전역에서 동시에 치러진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전국 수학 경시대회를 겸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4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이학년별로 60분에서 90분 동안 시험을 치렀다. 모든 행사 참가자들

에게는 참가증과 간식이 제공되었으며, 시상식 후에는 경품 추첨을 통해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즐거움을 주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김용현 총영사, 이강원 북미 한인교수협회 (KAUPA) 회장 등이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성적 우수자들을 시상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1등 총영사상은 St Peter Marian High School에 재학 중인 구분주 (11학년) 과 Lexington High School의 최수영, Newton South High School의 Brian Park (10학년 공동 1등) 이 차지했다. 구분주 학생은 지난해

에 이어 2년 연속 총영사상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강원 교수가 US-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UKC)와 함께 열리는 Youth Camp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김용현 총영사가 동영상 자료와 함께 자랑스런 한국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지휘한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정유진 회장은 “수학 경시대회가 단순히 수학 실력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지역 한인들이 함께 모여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참가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한인 학생들을 서로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인 행사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시민협회, 보스톤 한미 예술협회, 현대자동차, MathWorks, Nuance Communications 에서 후원 하였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참가자가 급감해 과기협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 90여명에 비해 거의 반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그동안 해마다 10명씩 정도 줄어왔던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올해는 무려 40여 명이 줄었다.

올해 참가자수의 감소에는 재미한

## 학년별 수상자 명단

Grade	Rank	Name	School
Grade 4	1	Ji Won Kim	Edith C. Baker school
	2	Nathan Peck	Daniel Butler School
	3	Lauren Kim	Neary Elementary School
	honor	Jeongwon Suh	Joseph Estabrook Elementary School
Grade 5	1	Jack Kim	Chickering School
	1	Sayan Panda	Roderick Elementary School
	3	Austin Kim	McCarty-Towne Elementary School
	Honor	Matthew Jo	John F. Ryan Elementary School
Grade 6	1	Andrew Song	Gordon School
	2	Christopher Phee	Clark Middle School
	3	Audrey Chun	Ephraim Curtis Middle school
	Honor	Hyeon Suh	William Diamond Middle School, Lexington, MA
Grade 7	1	Shane Lee	Carlisle Public School
	2	Ephram Chun	Ephraim Curtis Middle school
	3	Sunjae Kim	Wood Hill Middle School
	honor	Jaeyong Shim	The Pike School
Grade 8	1	June Kim	Wayland Middle School
	2	Bonjune Koo	St Bernadette School
	honor	Eujin Lee	Rectory School
Grade 9	1	Taiki Aiba	Lincoln Sudbury Regional High School
	2	Euhan Kim	Lexington High School
	3	Minjune Kim	Lexington High School
	Honor	DANIEL JOH KANG	BELMONT HIGH SCHOOL
Grade 10	1	Sooyoung Choi	Lexington High School
	1	Brian Park	Newton South High School
	3	Eric Song	Moses Brown School
Grade 11	1	Bonju Koo	St Peter marian high School
	2	Dylan Kim	Acton Boxborough Regional high
	honor	JUNHYUK KANG	WINCHESTER HIGH SCHOOL



제 27회 뉴잉글랜드 과기협 주최 수학경시대회가 4월 7일 토요일 MIT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약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시험에 응했다

국학교협의회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글짓기 대회와 날짜와 시간이 겹친 것은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글짓기 대

회의 참가자 또한 지난해에 비해 상당수 줄었다는 게 관련 임원의 말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최한 2018년도 글짓기 대회가 예년에 비해 이른 시간에 끝났다

## 일찍 끝난 글짓기 대회, 시상식은 따로하기로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글짓기 대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엔 단 1명만 출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최한 2018년도 글짓기 대회가 예년에 비해 이른 시간에 끝났다. 협회가 시상식을 글짓기 대회와 분리해 따로 진행하기로 한 것과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참가자도 단 1명만 참가했기 때문이었다.

이현경 협의회 회장은 “매년 글짓기 후 2시간 정도의 심사 결과 뒤에 시상식이 이뤄져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도 힘든 행사 중에 하나였다. 더군다나 기다림 뒤에 시상식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어서 더 마음이 안 좋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보고자 올해부터 글짓기 대회 및 나의 꿈 말하기 대회와 시상식을 따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심사위원들도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어 또 다른 장점이 다” 고 의견을 밝혔다.

4월 7일 토요일은 학생들에게는 분주한 날이었다. 오전 한국학교, 오후에 글짓기 대회는 물론 과거 협 주최의 수학기시대회가 동시에 열렸기 때문이다.

앤도버 소재 북부보스톤교회에서 열린 글짓기 대회 참가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적었던 것은 학생 행사가 겹쳤던 이유다.

행사 시작은 2시 30분부터였다. 이현경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선을 다하여 줄것을 당부했고 귀빈과 감독, 심사 소개했다. 이어 각 학년별로 각 학교 교

장들이 2개씩 주제를 선택해 시험 교사들에게 건넸다.

학생들은 바로 각 학년의 해당 감독을 따라 시험장으로 이동했다. 학생들은 3시부터 4시반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글짓기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나의꿈 말하기 대회에서는 이우진 양이 단독으로 출전해 발표했다.

협의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심사위원들은 8시까지 모든 채점을 마치고 수상자를 확정했다. 이 수상자들은 각 학교장들에게 4월 9일 전달됐다. 협의회는 14일 성요한교회에서 수상자를 따로 불러 시상할 계획이며 시상을 마치고 수상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프리킨더 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참가상을 수상했다. 김수현, 한유주, 동이랑, 조민수, 엄지안 학생이 이날 상장을 수여받았다.

제 1회 골든징 대회 우승자 홍리나 양이 제시한 마지막 문제를 풀고 징을 울린 최종 우승은 이샘 학생이 차지했다. 이군은 “골든징 대회에서 우승해서 기쁘고 어른들과 탈락했던 친구들이 끝까지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마지막 골든징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회를 계획하고 총괄한 김진희 교사는 “골든징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한글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본인들의 향상된 실력을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이 된거 같아 기쁘다” 라고 밝혔다.

골든징 대회는 중간 중간에 재미있는 영상이나 친구들과 함께 푸는 문제를 통해 대회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또한, 푸집한 상품으로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던 모든 학생들

## “한국어 실력도 뽐내고, 징도 울리고”

### 내슈아 한마음 한글 학교 제2회 한국어 골든징 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내슈아 소재 한마음 한글학교는 한국어 골든징 대회를 4월 8일에 개최했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이하는 골든징 대회는 학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한국어 실력을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뉴햄프셔 내슈아 소재 한마음 한글학교는 한국어 골든징 대회를 4월 8일에 개최했다

유아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진행된 골든징대회 규칙은 학생들이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한글 관련 문제를 푸는 것이다. 최후의 한사람은 마지막 골든징 문제를 풀고 교내에 있는 큰 징을 울리면 우승을 차지한다.

을 격려했다.

제 1회 골든징 대회 우승자 홍리나 양이 제시한 마지막 문제를 풀고 징을 울린 최종 우승은 이샘 학생이 차지했다. 이군은 “골든징 대회에서 우승해서 기쁘고 어른들과 탈락했던 친구들이 끝까지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마지막 골든징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골든징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의 한 부모는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푸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탈락했어도 끝까지 문제를 푸는 친구들을 위해 응원하는 모습이 큰 감동이였다.” 라고 말하였다.

이 대회를 계획하고 총괄한 김진희 교사는 “골든징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한글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본인들의 향상된 실력을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이 된거 같아 기쁘다” 라고 밝혔다.

내슈아 한마음 한글학교 김연정 교장은 “항상 한마음 한글 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한글 관련 대회와 행사를 통하여 아이들이 한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며, 부모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골든징 대회는 중간 중간에 재미있는 영상이나 친구들과 함께 푸는 문제를 통해 대회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또한, 푸집한 상품으로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던 모든 학생들

내슈아 한마음 한글학교는 매 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20분 까지 수업을 하며 각 학생들의 한글 수준에 맞게 여러 반이 구성되어 있다. 한글학교 등록문의 메일은 dorcas76@gmail.com 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좌로부터) 김용현 보스턴 총영사, 톰 라이든 매스로보틱스 대표, 김창호매스대구로보틱스 회장



## 보스턴 산악회 정기 산행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산악회는 4월 21일 토요일 뉴햄프셔 제프리 소재 마운틴 모나드록(Monadnock, 3165 ft)을 등반하는 정기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의 왕복 산행거리는 4.0마일이며, 오름높이는 2150ft 산행시간은 약 4시간 30분 정도이다. 난이도는 3.0으로 보통 수준이다. 트레일에 바위도 있고 부분적으로 가파른 곳이 있다.

겨울 산행이니만큼 배낭, 등산화, 트레킹폴, 아이젠(MicroSpikes or Crampons), 스파츠, 방한복, 방풍의, 장갑, 털모자, 비상용 양말, 식수, 간편중식 등 겨울철 산행 준비를 해야 한다.

집결지는 Park&Ride Exit2 of

RT93으로 오전 8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3월 20일(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해야 참가가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617-780-5711(김수환)로 할 수 있다. 날씨 관계로 산행지 변경 및 4명 미만인 경우 취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야 한다.

산악회 측은 “산행정보방의 겨울산행상식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아이젠 등산화 방한복과여벌 장갑 털모자 5가지는 필수입니다” 라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한국로봇산업계 매사추세츠와 협력 단체 설립

▶▶1면에 이어서

최성혁 한국측 3명과 탐 라이든, 데니얼 티오볼드 총 5명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김창호 씨가 이 단체의 회장을 맡는다.

이 단체를 통해 매사추세츠와 대구로봇기업들은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로봇 프로그램 교환, 정부지원 정보 협력을 통해 상호 로봇산업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단 올 가을 매스대구로보틱스 전시관을 대구 로보틱스에서 개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상당수 매스 로봇기업들이 이 전시회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매스대구로보틱스 김창호 회장은 출범식의 모두에서 “(자신이 대표로 운영중인 회사) 아진아스텍과 매스의 베크나(Vecna), 그리고 일본의 야스카와가 언어, 문화 장벽을 넘어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움이 많지

만 열린 마음으로 비교우위를 살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톰 라이든 매스로보틱스 대표는 “매스로보틱스는 로봇 기업을 돕는 단체로 다른 단체와 협력해 더 많은 로봇기업을 키워 매사추세츠 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성장토록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총영사는 “미국내 로봇산업의 선두를 달리는 보스턴과 한국로봇산업의 메카인 대구와 협력단체를 만들어 광범위한 협력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로봇산업에 대폭 투자를 늘리고 있어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남팜 매사추세츠투자무역청(모이티) 차관은 한국의 방문단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매사추세츠와 대구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 대표단의 한국에 대한 기여가 매사추세츠를

동시에 좋게 한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라킨 매스테크 부대표는 “매사추세츠에는 132개의 로봇관련 회사들이 있으며 이중 43개는 2011년 이후에 신규창업한 스타트업 회사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매사추세츠는 미국 로봇산업의 선두주자로 규모 면에서는 적을 수 있지만 그 다양성에서는 최고”라고 밝혔다. 또한 “베이커 행정부가 로봇산업에 5백만불을 투자했으며 MIT의 미제조업첨단로봇센터에 2백만불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스테크는 첨단혁신산업 기업을 돕는 준 정부기관이다.

출범식 후 한국대표단은 시포트에 위치한 매스로보틱스를 방문해 시찰하고 이날밤 진행된 Massinnovation Night이벤트도 지켜보았다. 한국대표단은 10일 모이티를 방문했으며 이어 MIT 컨퍼런스에도 참가했다.

editor@bostonkorea.com

## 노인회원 4월 셋째주 사랑방 모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노인회는 셋째주 사랑방모임을 4월18일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개최한다. 30분간의 커피타임후 10시 20분부터 자유시간을 가지며 10시 20분부터 박은희 강사의 요가강좌가 30분간 진행된다.

11시부터는 유나이티드 댄스 로울(Lowell) 이상진 치과의사와 직원들이 건강치아 강의와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5월 첫째주 사랑방모임은 4월 9시 커피타임부터 개최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실내에서 스카이다이빙, 서핑, 슬라이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뉴햄프셔 소재 (스카이벤처). 그루폰을 이용하면 좀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 스카이다이빙과 서핑을 한 지붕 아래서

## 어린이들을 위한 극한 스포츠 체험 실내 놀이터 <스카이벤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스톤 아이들에게는 곳도 날개에도 맘껏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가 필요하다. 눈이오나 비가오나 즐겁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놓고 놀 수 있다는 것 또한 실내 놀이터의 장점이다. 극한 스포츠와 같은 위험한 활동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가 있다. 보스톤에서 한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카이벤처는 어린이들이 스카이다이빙이나 서핑과 같은 극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창문이 많아 햇빛이 잘 드는 밝은 시설은 크고 깨끗하며 실제 야자수로 한껏 열대우림 분위기를 냈다. 입장료는 조금 비싼 편으로 스카이다이빙, 서핑, 슬라이드, 등반을 모두 하려면 \$105; 스카이다이빙, 서핑, 슬라이드는 \$100; 스카이다이빙과 서핑 두가지는 \$90이다. 한가지 팀은 그루폰에 할인상품이 많이 나와있기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주말이나 방학에는 스카이다이빙이나 서핑을 하려는 아이들이 많아 한 시간 가량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음식은 스카이벤처 내부로 반입이 안되지만 놀이시설 중심에 위치한 오아시스 카페에서 키즈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스카이다이빙 (3세 이상 이용 가능) 특수 윈드 슈트와 안전 헬멧, 고글을 착용하고 최첨단 '수직 바람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 일정하게 부는 통제된 공기가 트랩펄린 바닥 위로 몸을 붕 뜨게 만든다. 조종사의 팔이 닿는 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너무 겁먹을 필요없다. 옷을 갈아입는 것에서부터 다이빙까지 전체 과정은 한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10분을 추가로 지불하면 좀 더 높은 곳에서 다이빙 가능하다. 좀 큰 아이들은 이것이 "가치있는 투자" 라고 한다고

서핑 (5세 이상 이용 가능) 미국 내 실내 서핑장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의 파도 기계는 7가지 유형의 파도를 만들어내 다양한 레벨이 즐기기에 충분한 환경을 제공한다. 부기보트나 실제 서핑보드 중 골라서 탈 수 있다. 서핑은 소그룹으로 15분간 진행되며 항상 스태프가 옆에서 대기 중이다. 암벽등반 및 워터 슬라이드 (3-4세 이상 이용 가능) 독특한 "물고기파이프" (Fish-pipe) 모양의 슬라이드는 혼자서 혹은 2인에서 3인까지 같이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4세 부터 이용 가능하다. 암벽등반은 24피트의 높이로 실제 돌과 같은 감촉으로 만들어졌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레벨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있다. 3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다. <https://skyventurenh.com> [sun@bostonkorea.com](mailto:sun@bostonkorea.com)

# 보스톤 마라톤 한국 선수 50명 참가

▶▶1면에 이어서 ▶▶이외에도 4천여명의 주, 연방 경찰병력이 보스톤 마라톤을 경호한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가장 권위가 높은 보스톤마라톤은 합킨톤을 출발 보스톤 보일스톤 스트리트 시립도서관 앞의 결승선까지 총 26마일 385야드를 달리게 된다. 오전 8시 50분에 장애인선수들이 출발하고 9시 17분에 남자 휠체어, 19분에 여자 휠체어 레이스가 출발한다. 엘리트 여성 선수는 오전 9시 32분에 출발하며 엘리트 남성선수와 1차 출발팀은 오전 10시에 출발한다. 2차 출발팀은 10시 25분, 3차 출발팀은 10시 50분 4차 출발팀은 11시 15분에 출발한다.

올해 우승 상금은 지난해와 같은 \$830,500이며 신기록을 세울 경우 보너스로 \$220,000을 받게 된다. 보스톤 마라톤의 남자 신기록은 2011년 세워진 케냐출신 지오프리 무타이의 2시간 3분 2초이다. 여자 신기록은 2014년 에디오피아 출신의 데바 베주네시가 세운 2시간 19분 59초다. 한국 선수중에는 우승을 다룰 엘리트 선수가 올해도 출전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1000번대 이하의 선수도 없다. 주목해야 할 선수로는 최일 (40, 등번호2697), 최지욱 (28, 등번호 3047) 이하석민 (30, 등번호 3898), 윤석령 (30, 4751)씨 등이다. [hsb@bostonkorea.com](mailto:hsb@bostonkorea.com)



작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를 완주한 한국 선수들 모습

### 마음대로 골라본다

# \$14<sup>99</sup>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동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mailto: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mailto: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HAPPY 해피돌상

고품질 전통상 대여 (떡갈신, 등신)  
장곡마다 더 정교한 전통 장동자, 장곡만 내 아가네가 장곡의 마음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침하겐!

• 품질을 다하는 화장은 필수적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장미의 마음으로 만든 기차기 케이크  
• 국내산 유기농사과 장미, 꿀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동성향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http://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mailto: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 한미연구소 폐쇄 결정에 대한 상반된 시각

중앙 "소중한 싱크탱크 사라져" vs 한겨레 "불투명한 운영...세금 마음대로 써"  
보수지 "문재인에 블랙리스트", 청와대 "방만한 운영, 싱크탱크 활동 저조"

(ThePR) 이윤주 기자 = 예산 지원이 중단된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결국 다음달 문을 닫는다.

앞서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 이 사장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의 부적절한 간섭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완전히 부적절한 간섭"을 거부한 뒤 지원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실한 운영에 따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미연구소의 불투명한 예산 편성·집행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매년 20억원을 지원하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회계 투명성 등을 이유로 지원 중단 방침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한미연구소는 문을 닫지만 산하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운영을 계속한다.

중앙일보: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 이대로 날려버리는가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인사개입 논란에 휩싸인 미국 한미연구소가 정부의 예산 중단으로 다음달 문을 닫게 됐다. 연구소가 속한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측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에게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끊어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며 "한반도 연구를 통해 미 정·관계와 학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전해 온 워싱턴의 소중한 싱크탱크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구제회 소장과 함께 이번 일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결국 다음달 문을 닫는다

'38노스' 담당 제니 타운 부소장까지 바꾸라고 했다면 이는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다"며 "너무 거칠게 밀어붙여 정권 코드에 따라 외국 연구기관을 손보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특히 USKI가 폐쇄되면 10여년간 200억원 이상 쏟아부어 정성껏 가꾸 온 공공외교의 결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돼 더욱 가슴 쓰리다"며 "이제라도 이 소중한 기관이 문 닫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뿔을 고치겠다며 소를 잡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엔 시국이 너무나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방만 운영' 논란 끝에 문 닫는 한미연구소

한겨레는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 감독 없이 장기간 지속된 '불투명한 연구소 운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2006년 설립된 한미연구소는 지난 11년 동안 2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예산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한두 장짜리 결산보고서만 냈

고,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청와대가 보수진영과 가까운 구 소장을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보수언론도 이를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앞뒤 사정을 보면 설득력이 높지 않다"며 "오히려 한미연구소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연구 실적 저조가 문제라는 지난해 국회의원회의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고 봤다.

신문은 "한미연구소는 설립 이래 구 소장 등의 인건비에 예산 절반을 쓰고 한국학 전문가 양성 등 핵심 사업에는 예산의 4분의 1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연구소의 2016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애초 사업계획에 없던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와 공동세미나'에 8만 달러를 집행하고도 사후 보고가 없었다"며 "설립 이래 11년째 소장직을 맡고 있는 구 소장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받아 사실상 마음대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skyavenue@the-pr.co.kr

## 특파원 시각

# 30년째 제자리인 '대미 공공외교 개혁'

(워싱턴 = 한국경제) 한수진 특파원 = 대미(對美) 공공외교 기관 개혁 문제를 놓고 워싱턴DC가 시끄럽다. 퇴출 위기에 몰린 기관장이 한국 정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다닌다거나, 관련 정부 기관에 구조조정을 막으려는 전화가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현재 워싱턴DC에서는 한미경제연구소(KEI)와 한미연구소(USKI·존스홉킨스대 산하 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 사무소가 한국 관련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매년 약 60억원의 한국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개혁 초점은 KEI와 USKI에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안보와 통상 분야 대미 관계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선 제대로 된 대응 보고서 하나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들 '붙임기관' 개혁 방안을 열심히 다듬고 있다고 한다.

사실 두 기관에 대한 개혁 논의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KEI와 USKI가 설립된 것은 각각 1982년, 2006년이다. "두 기관 역사만큼이나 개혁 논의도 오래됐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 명확한 비전 없이 인적 청산 위주로 개혁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유아무야했다. 낙선(落選) 후 해당 기관에서 연수 형태로 신세를 진 정치인과 정부 고위 관료가 '흔쾌히' 이들 기관의 '바람막이'가 돼 줬다. "이들 예산을 삭감하려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많이 와 결국 손을 떼었다"는 정부 관계자의 토로는 놀랄 일도 아니다.

KEI 등의 개혁이 '30년 도루묵'이 안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공공외교 강화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신세진 인사들부터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 다음이 비전을 가진 개혁을 하는 것이다. 워싱턴DC에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를 정리한 후 기관별로 명확한 역할을 쥐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존 조직에 대한 발전적 해체와 신설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하나, 개혁 얘기가 나오니 기관 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인사권도 예산권도 없는 모 부처에서 고위 인사가 자리를 만들어 내려오는 얘기가 나온다. 틈만 보이면 자리부터 만들고 보려는 '황당한' 발상부터 접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psj@hankyung.com



##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바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 치과**

●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차량등록국 대기 목표 시간 재설정

## 리얼 아이디 이후로 대기 시간 길어져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목표 바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Registry of Motor Vehicles)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오던 목표를 바꾸었다. 80%의 방문객이 30분 이내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던 차량등록국은 최근 목표치를 낮추어 80%의 방문객이 1시간 이내에 일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도 차량등록국의 목표치는 2배로 늦어졌다. 최근 도입된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 때문에 대기 시간이 대폭 길어진 것이 목표치를 낮춘 가장 큰 이유다.

스테파티 폴락 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방문객들이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길 바란다”며 “동시에 우리는 직원들이 성공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등록국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을 바꾸고 3월 26일부터 리얼 아이디라고 불리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신분증과 관련하여 엄격해진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된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이다.

리얼 아이디를 발급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방문객들은 5시간까지 차량등록국에서 기다리는 등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 리얼 아이디 발급 첫날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 전체 대기 시간은 평균 2시간이었다.

리얼 아이디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10월부터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리얼 아이디가 아닌 기존 운전면허증만 가지고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리얼 아이디는 반드시 차량등록국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민권

이나 영주권 등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리얼 아이디가 도입된 이후, 리얼 아이디가 아닌 기존의 매사추세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차량등록국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리얼 아이디나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상관없이 발급 받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차량등록국 직원들은 더 많은 서류를 살펴봐야 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한다.

리얼 아이디가 도입되기 전까지 차량등록국은 목표치를 달성했다. 지난 1월과 2월에 차량등록국을 찾은 90% 이상의 방문객이 30분 이내에 일을 마쳤다.

jsi@bostonkorea.com



차량등록국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



## MA주 학생들 영어 읽기와 수학 점수 최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 면에서 다시 한 번 미국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매사추세츠 학생들은 영어 읽기와 수학 분야에서 미국 내 다른 어떤 주보다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찰리 베이커 행정부는 지난 10일, 7년 연속으로 매사추세츠의 학생들이 전미 학업 평가 시험에서 공동 혹은 단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내 1위라는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종에 따라 학업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4학년 읽기 시험을 예로 들면, 아시아 학생 중 64%와 백인 학생 중 60%가 ‘능숙한 (proficient)’ 단계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흑인 학생들은 29%만이, 마찬가지로 히스패닉 학생 중 29%가 ‘능숙한’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제임스 페이스 교육부 장관은 2015년부터 학생들 사이의 학업 능력 차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 서울설령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Boston.com



# 서울 떡볶이

(구 비빔)



##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까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 617.787.5656

SEOUL TOPOKKI

##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 라이언 의장, 중간선거 불출마 1월 은퇴...공화 빨간불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내년 1월 임기를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라이언 의장의 대변인인 브렌단 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아침 라이언 의장은 그의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올해가 하원으로서 그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라이언 의장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불출마하고 남은 임기를 마치는 1월 은퇴할 예정이다. 유력후보가 재선 도전을 하지 않을 뜻을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의 입지는 더 불안해졌다.

라이언 의장의 사임설과 관련해 익명의 공화당원은 "이건 타이타닉이고 지각 변동"이라며 "(라이언 의

장이 사임하면) 공화당 후원자들은 하원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사임설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한 측근은 라이언 의장이 은퇴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좌절감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 공화당은 대통령의 잦은 스캔들과 이로 인해 급락한 지지율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정책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공화당과의 논의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공화당의 과반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는 것이 지배적인 예측이다.

라이언 의장을 대체할 차기 의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와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의원이다.

라이언 의장은 2015년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후임으로 45세에 의장직에 올랐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선 미트 롬니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돼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seunghee@news1.kr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 보서트 국토안보보좌관 돌연 사임, 불턴이 요구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톰 보서트 미국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난다. 존 불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하루만이다.

10일 AFP통신에 따르면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이 나라의 안전과 안보에 헌신한 보서트 보좌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그의 퇴임 사실을 밝혔다.

이어 "보서트 보좌관은 테러리스트의 위협과 사이버 안보,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을 이끌었다"며 "대통령은 그의 애국적 봉사에 감사하며 그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샌더스 대변인은 보서트 보좌관이 정확히 언제 백악관을 떠날 예정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슈퍼 매카' 불턴 전 유엔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취임한 지 하루만에 보서트 보좌관의 사임 발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미 언론은 일제히 부각했다.

블룸버그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 보서트 보좌관

의 사임이 불턴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불턴 보좌관이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또 다른 국토안보보좌관들을 밀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했다.

seunghee@news1.kr



톰 보서트 미국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



## 매사추세츠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 역대 최고

### 지난 1사분기 투자액 26억 달러 넘어서 미국 내에서는 2번째로 많은 금액 투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1사분기에 매사추세츠에 투자된 벤처 캐피탈 액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벤처 캐피탈 회사를 통해 투자된 금액은 26억 2천 9백만 달러(\$2.629 M)였다.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와 데이터 분석 기업인 시비인사이트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2018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투자된 벤처 캐피탈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벤처 캐피탈 계약 성사 건수에서 미국 내 3번째로 많은 110건이 이루어졌다. 매사추세츠 주보다 많은 주로는 캘리포니아가 513건으로 1위, 뉴욕 주가 170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액수에서는 매사추세츠 주가 뉴욕보다 높아 2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캘리포니

아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115억 7천 9백만 달러가,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6억 2천 9백만 달러가 벤처 캐피탈로 투자되었다. 뉴욕에서는 23억 5천 7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의 벤처 캐피탈 투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역대 3번째로 큰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캠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더나 테라프릭스는 1월 말에 5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지난 1사분기는 인공 지능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인공 지능 분야에서만 13건의 벤처캐피탈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액수도 역대 2번째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지난 해에 비교하여 지난 1사분기 매사추세츠 주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4%가 증가하였다.

jsi@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 미·러, 시리아 미사일 설전 군사개입 우려 커져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미사일 대응 위협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백악관이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을 시리아와 러시아로 돌리면서 실제 미사일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지난 주말 시리아 반군 점령지인 동(東)구타 두마에서 일어난 화학무기 공격이 사실은 가짜일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군사대응 옵션이 여전히 선택지에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가) 받은 정보는 분명히 (러시아의 주장과는)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번 화학무기 공격을 시리아와 러시아의 책임으로 본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내 화학무기 생산 또는 수송과 관련된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타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리아의 민감한 군사시설 대부분은 러시아의 미사일방어 체계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러시아, 이란, 시리아군이 함께 주둔 중인 기지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멋지고 새로우며 똑똑한 미사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리아로 향할 것"이라던 트윗에 대해서는 "그런 면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등과 안보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트윗 설전은 러시아가 시리아로 날아드는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겠다고 밝힌 뒤 시작됐다.

트럼프는 "러시아는 준비해라. 멋지고 새롭고 스마트한 미사일이 가고 있다"며 "(러시아는) 국민을 죽이고 즐거워하는 '독가스 킬러 짐승'(Gas Killing Animal)의 동반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스마트한 미사일이 화학무기 사용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버리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맞섰다.

알렉산더 자시프킨 주레바논 러시아 대사도 이날 헤즈볼라 알-마나 TV 방송에서 "미사일을 쏜 발사기지를 목표로 해 미국의 미사일을 격추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시리아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lchung@news1.kr

# 물러 특검 지킨다 민주·공화초당적 법안 마련

## '물러 해임' 트럼프 으름장에 움직이는 상원의원들 "정당한 이유 있을 때 법무부 고위관료만 특검 해임"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물러 특별검사를 겨냥한 백악관의 해임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이 이를 가로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AFP통신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물러 특검 해임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상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이 제안한 특검 독립·온전성법(Special Counsel Independence and Integrity Act)은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 캠프의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물러 특검은 물론 앞으로 나올 특별검사들은 '정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을 때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특검 해임이 결정되면 당사자는 1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명시됐다.

법안은 "(특검 해임과 관련한) 결정 권한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조연받았다"며 물러의 해임이 실현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시사한 백악관 측 입장발표 하루만에 마련된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팀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해임 협박을 또다시 쏟아내며 물러 특검을 겨냥한 비난과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물러 특검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초당적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의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로버트 물러 특별검사

AFP통신은 설명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특검은 경계선 안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동시에 보호받기도 해야 한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법안은 그레이엄 의원을 포함해 톰 티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코리 부커(민주·뉴저지), 크리스 쿤스(민주·텍사스) 등 4명의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공화당 지도부에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슈머 대표도 전날 물러 특검의 해임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 개입으로부터 특검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치 매코넬(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 주도해 (물러 특검을 지킬) 초당적 법안 몇 가지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매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 특검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법안 마련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lchungys4174@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애플 안사고 맥도날드 안먹고 중국인들 미국산 거부로 관세 보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중국 내에서 반미 운동이 전개될 조짐이다. 중국인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사태 때 한국에 가한 공격을 최근 무역 전쟁 상대인 미국에 그대로 되풀이하려는 조짐이 나타났다.

8일 뒤웨이(多維)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반미 감정이 끌어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반미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시위 참석자 왕젠은 100명정도를 모아 반미 행진을 벌일 것이라면서 "미국이 주도한 무역 전쟁을 강력히 비판하고 당국의 보복 조치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에서

는 '중국 제품을 사고, 미국산 제품을 사지 말자'란 피켓을 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불매운동과 관련한 서명 운동을 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고 뒤웨이는 전했다.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NN

은 6일 중국 당국이 지난해 사드 국면에서 한국을 겨냥해 내놓은 방한 금지령 등과 유사한 대미 관광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중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로 지난해 롯데와 같이 애플·스타벅스 등이 폐쇄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도 중국 내 미국 기업과 미국산 제품에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글이 올라왔다고 전해졌다. yjw@news1.kr



## 애플 창업자 워즈니악 "폐북 혐오"...비판 대열 합류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는 페이스북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워즈니악은 9일 CNN머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프로필과 같이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정보에 그들이 얼마나 접근했는지 신경 쓰인다"며 "나는 페이스북을 혐오한다"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보다 이윤을 더욱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워즈니악은 "그것(이용자 정보)

은 돈으로 바뀌었지만 당신은 정보를 제공한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용자들은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페이스북에 제공하고 페이스북은 많은 광고로 돈을 번다"고 비판했다.

워즈니악은 1970년대 고(故)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설립한 인물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출범에도 참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실망한 시민들

이 중심이 된 페이스북 삭제 운동 '딜리트페이스북'(#DeleteFacebook)에 동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페이스북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비활성화(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soho0901@news1.kr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 파산 위기 테슬라의 진짜 문제 '모델3' 아닌 '솔라시티'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파산설이 나도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진짜 문제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3의 생산 지체가 아니라 테슬라가 인수한 태양광 패널 설치회사 솔라시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블룸버그는 수년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솔라시티가 최근 테슬라가 처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테슬라 최초의 양산 모델인 모델3의 생산속도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주가와 채권가격이 동반하락하는 등 최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솔라시티는 머스크가 두 명의 사촌과 함께 설립한 회사로, 16개월 전 인수해 현재 22%의 지분을 갖고 있다.

당시 테슬라가 29억 달러의 빚과 함께 20억 달러에 인수한 솔라시티에 대해 코브넨트리뷰의 분석가인 알렉산더 디아즈-마토스는 "솔라시티의 부채가 테슬라의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사태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확실하

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전환사채, 약속어음, 장단기 채권 등 온갖 종류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모델3의 생산 속도를 올리는 데 직결되는 현금자금이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모델X의 사망 사고까지 겹쳐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22% 급락했다. 테슬라가 모델 3의 생산량 목표를 발표하고 올해 더 이상의 채권 등의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후에 주가는 21% 반등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양새다.

모델3의 생산량 문제에 더해 재무 압력이 높아지면서 무디스는 최근 테슬라의 신용도를 투자등급에서 6단계나 아래인 B3로 내렸다.

크레디트사이트의 분석가 히틴 아난드는 "솔라시티의 부채가 부담"이라면서 "핵심 사업도 아니면서 성장을 원하는 이 분야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ungaungae@news1.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점심 뷔페 시작!**  
월-토: 11:30~2:30  
일, 공휴일: 12:00~3:00

# 불판

## 바베큐&라운지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http://stevesuh.com) / [suhlawyer.com](http://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 김기식,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자진사퇴 촉구 결정

## 정의당, 김금감원장 자진사퇴 공식 촉구 결정 범여권 정의당까지 野 공세 가세, 데스노트 회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12일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식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김금감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야 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에 이어 야당 중 문재인 정부와 성향이 가장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의당마저 김원장 사퇴를 요구하자, 정치권에선 '정의당 데스노트'(살생부)가 회자되고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 본인의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정부 금융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당은 김금감원장을 감싸는 듯한 청와대 태도를 비판하면서

도, 정부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과는 달리 당의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김금감원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정의당은 결국 김금감원장의 자진사퇴로 당 입장을 결정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김금감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야 4당이 일제히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자 김금감원장 사퇴 압박은 전보다 더욱 커지게 됐다.

연금 가입이벤트 진행중(~4/30) 정의당이 그간 논란의 인사들에 대해 사퇴 촉구 입장을 결정하면 종종 현실화돼 정의당의 결정은 '데스노트'라 불린다.

안경환 법무, 조대엽 노동, 박성진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박기영 과 학기술혁신본부장 내정자 등의 낙마

가 사례로 거론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의당까지 김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부·여당도 무조건 감싸기식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결정은 김기식 원장 사퇴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므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 '재벌개혁에 적합하므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33.4%, '잘 모름'은 16.1%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퇴 찬성' 의견이 우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기자회견

세했다. '사퇴 찬성' 의견은 서울에선 57.0%였으며 부산·경남·울산과, 대전·충청·세종도 55.7%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층에서 사퇴 찬성이 59.1%였으며 50대 이상은 53.4%, 20대에서도 50.6%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40대에선 '사퇴 반대'가 48.3%로 '찬성' 의견보다 높았으며 30대에선 '사퇴 찬성'(42.5%)과 '반대

(44.5%)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며 응답률은 6.4%다.

sekim@news1.kr

## "금감원장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 與 김기식 부담 증폭

(서울=뉴스1) 나혜윤,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김 원장 해임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김 원장에 대한 '감싸기'를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의 사퇴촉구 총공세에 대해 "야당의 의혹이 제각각 점입가경"이라며 "사실이 아닌 아베한 과도한 비난과 의혹제기는 인격 살인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있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작 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 도중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우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 목록에는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이 우 원내대표에게 "금감원장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김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민심을 청와대에 잘 전달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였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당내

여론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러 의원들이 당연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며 "문제가 자주 드러나면서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는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청와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김두관 의원처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야당의) 문제제기 방식이 너무 아베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의원들 이야기는 다 뻔하다. 별로 좋지 않다"며 "이왕 빨리 물러나는 게 좋은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 자진 사퇴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이 '침소봉대식' 의혹 제기와 악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김 원장의 사퇴 요구는 무리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이런 식이면 사퇴하지 않을 국회의원들이 없다"며 "(김 원장이) 개혁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야당이) 반대하는 것 아닌가. 정말 너무 악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혹들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무엇인가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며 "오히려 전투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의 정치적 우군으로 평가 받았던 정의당도 사실상 김 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비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 과정에서 정의당의 입장은 임명과 낙마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김 원장도 정의당 리스트에 사실상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의당의 반대로 임명이 좌절됐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가 유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달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의 원칙이 '적법'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났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김기식 원장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재검증과정에서 조국수석을 보증수표처럼 내세운 대목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freshness410@news1.kr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 한국당, 김기식 외유 논란 참여연대 게이트로 확전 태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6·13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을 '참여연대 게이트'로 확전할 태세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피감 기관 지원으로 비서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을 빚고 있다. 여기에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고액 강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후원금 뺑처리 의혹마저 받고 있다.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까지 포함한 '참여연대 게이트'로 대어전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외유성 출장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김 원장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포함해 참여연대 게이트로 몰고 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김 원장을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김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다. 조 수석은 지난 2011년 김 원장과 함께 시민단체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 대표를 맡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 원장이 소장자로 있던 더미연구소의 이사과 강사로 활동했던 게 뒤늦게 알려졌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 참석해 "이 정권의 본질은 전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주사파들의 연합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원장에 대한 여론악화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여전히 '사퇴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수석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장 낙마 시 조 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에도 야당의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임명철회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pjy1@news1.kr



# '새빨간 거짓말' 결백 주장...11년만에 법의 심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모두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기소는 퇴임(2013년 2월24일) 후 1870일만이다. 읍서널케 피탈의 고발(2017년 10월13일) 이후 178일 만이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2018년 1월11일)한지 88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후 방문조사를 통해 각종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검찰은 3월 26일과 28일, 4월 2일 등 총 3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기간 직접 조사는 실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다져갔고 결국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11년 전 제기되기 시작했다. 2007년 7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이 터져 나왔고 이 전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했다. 선거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BBK·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은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이어졌다. 당선 후인 2008년 1월에는 특검을 임명해 재차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008년 2월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BBK 주가 조작 및 횡령 의혹, 삼양동DMC특혜분양 관여 등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다시 결론 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 전 대통령은 각종 의혹을 뒤로하고 2008년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내국동 땅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12년에는 내국동 사저 특검법이 발의됐고 이광범 변호사가 특검팀을 이끌게 됐다. 그러나 내국동 특검도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 명의로 사들인 내국동 사저부지 비용 6억원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뒤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읍서널케 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2017년 12월에는 참여연대가 이상은 다스 회장과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아울러 정호영 전 특검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12월26일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하는 다스 수사팀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다스 수사팀은 올해 1월 다스 본사, 다스의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초동의 영포빌딩,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도 1월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1부 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틀 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었다.

측근들이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1월17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검찰 수사에 대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반발에도 검찰은 영포빌딩의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해 출처가 청와대로 보이는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고 일부 측근들은 기소됐다.

검찰은 압수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적시했고 국정원 특별비수수 관련 의혹 주범도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지난 3월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를 믿고 지

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닷새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심문기일에 대한 헌선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예정됐던 지난달 22일 서류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원동 자택에 머무르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yjra@news1.kr

## MB 정부 전방위 댓글 공작, 기무사가 기획

(서울=뉴스1) 나혜윤, 최은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가 전방위 댓글 공작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2008년 6월4일 청와대에 보고한 '참고자료(6·4 청와대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국정원과 경찰청, 합참, 기무사 등 기관별 사이버 인력 현황을 파악한 뒤 '비노출 특수팀' 운영을 건의했다.

기무사는 비노출 특수팀은 운영 목적을 "좌익세(력)의 재정부 선전·선동에 대응, 정부 지지 여론 확산"으로 설정, "인터넷상에서 좌익세와 이념·사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전투적 미디어"를 설립해 "특수 민간팀 운영과 병행"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비노출 '특수 민간팀' 운영의 단계별 활동 세부 내역 관련해서, 1단계에서는 △KBS·MBC 및 좌파매체의 반(反) 정부 선동방송 모니터링 △좌파 대응 논리개발, 온·오프라인상 확산 △우파매체에 기사

·칼럼 게재, 우파단체 명의 자료 배포 등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자료를 호소력이 강한 선동성 논리로 재구성 △각종 미디어(동영상·음악·만화 등)로 가공, 온·오프라인 확산의 역할을 맡는 등 단계별 연간 예산까지 보고했다.

또한 특수 민간팀 팀장으로는 "좌익 추적 전문 프리랜서 기자, 우파매체에서 7년째 활동 중"이라는 김성욱씨를 추천했다.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민간 여론조작 조직인 '알파팀'의 팀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 측은 "댓글 여론 조작의 선봉에 섰던 알파팀의 기획을 기무사가, 실행은 국정원이 나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 측은 "기존 댓글 사건들처럼 조직원의 일탈행위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습관적으로 정치 공작을 하는 조직으로 보인다"며 "매 정권마다 정치개입을 반복하고 집권 세력이 원하는 보고서를 제공하며 (활동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reshnews410@news1.kr

## MB정부 민간인 사찰 공무원, 2심도 책임 인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명박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종의 전 KB한마음 대표(61)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2일 국가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54),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62)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3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

김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77) 재임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쥬코' 동영상 올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지난 2010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다음 해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 대표에게 5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에게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국가가 이 전 비서관 등 7명도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비서관 등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이 전 비서관 등에게 구상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법사찰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고, 국가는 피고들에 의해 국가기관이 불법행위의 매개체로 전락하지 않게 예방·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 등의 책임은 70%만 인정했다. asd123@news1.kr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 Featured Business Listing



### 카페 매매

보스톤에서 성업중인 Cafe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카페 매매 번잡한 좋은거리. 장기리스 가능

Asking **\$340,000**



###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들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 세탁소 매매

Haverhill 에 위치 매상 \$150,000 세탁소 1,100 Sq. Ft. 24년째 운영중. 안정적인 매상.

Asking **\$135,000**

## NEW LISTINGS

**Commercial**

**건물 매매**  
보스톤 남쪽, 세탁소 입점된 단독건물 세탁소와 함께 구입 가능  
Asking **\$545,000**

**Residential**

**앤도버 콘도 매매**  
럭셔리 타운하우스 3852 sqft, Bed:3 Bath:4,5 필립스아카데미 5분거리  
Asking **\$975,000** Price Reduced

**Commercial**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연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Fish Market**  
보스톤 남쪽 번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000 이상, To-go 메뉴 Extra 수입. 소비자 리뷰가 매우 좋은 가게. 넓은 주차공간  
Asking **\$180,000**

**Business**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부 Full Plant, 크기 2,000 Sq. Ft. 보스톤에서 30분 거리, 25년간 성업중. Shopping Center 안에 위치. 매상 \$250,000  
Asking **\$23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Price Reduced

**Business**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세탁소 매매 좋은 동네, 안정된 고객층 800 Sq. Ft. 연매상 \$180,000  
Asking **\$130,000**

**Business**

**옷가게 매매**  
보스톤에 위치한 옷가게 매매 인벤토리 포함, 2,000 Sq. Ft.  
Asking **\$150,000**

**Business**

**코인세탁소 매매**  
보스톤에서 15분거리에 위치한 코인세탁소 연매상 \$350,000+, 2,500 Sq. Ft. 안정된 매상, 고객층 및 여유로운 주차장  
Asking **\$450,000**

**Business**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Condominium  
120 Parker St. - Unit 26  
Acton, MA  
Asking price: \$189,900  
Listing Agent: Laura Rakauskas



Just listed: Town House/Condo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Asking price: \$284,9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Rental  
16 Abbey Road - Unit 17  
Sherborn, MA  
Asking: \$3,750/mo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905C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Asking price: \$61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Rental  
1731 Beacon St. Unit 301  
Brookline,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Rental  
69 Qunit Ave. - Unit 26  
Boston,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Town House Rental  
53 South Walnut St. - Unit 2  
Quincy, MA  
Asking price: \$2,3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Single Family  
15 Meadow St.,  
Dedham, MA  
Asking price: \$599,9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3 Larch Rd.  
Ac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Teresa Vitelli**  
781.619.0473



**Johanna Parlon**  
978.501.4753



**M. Keith Peifer**  
304.963.292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 이제는 더 이상 낮설지 않은 병 "소아청소년 크론병" 조금 똥똥해도 괜찮지 않은 "소아청소년 비만"

### "우리 아이 똥속 건강 괜찮을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번쯤 생각해 봤을 법하다. 요즘 소아청소년들이 잦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주 휴람의 료정보에서는 소아 소화기 영양과 위장관 질환의 대표적인 크론병과 소아 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휴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 Crohn's Disease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궤양성 대장염과 유사하지만, 염증의 양상이 연속적이지 않고 드문드문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장의 모든 층을 침범한다. 소아청소년에서는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인 회맹부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대장, 회장 말단부, 소장 등에서도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드문 질환이었지만, 최근 10~20년 사이 소아청소년 크론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구화된 식생활이나 위생상태, 흡연, 약물, 스트레스 등 환경 요인의 새로운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장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증상의 종류와 정도는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며, 서서히 또는 급속히 나타나는데 만성 설사, 혈변, 배변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복통 등이 흔한 증상이며, 관절염, 포도막염, 피부 증상 등의 장외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환자의 약 30~50%에서는 항문 주위에 병적인 변화가 동반된다. 항문 주위 농양으로 배액술을 받은 뒤,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지속되어 내원하는 경우도 있다. 치핵, 치루 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크론병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증상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크론병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진단하기보다는 병력과 진찰 소견을 참고하여 혈액검사, 대변검사, 조영 검사나 복부 CT,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한다.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는 진단에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며, 때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경미한 크론병에서는 국소치료 또는 스테로이드 치료와 장관 영양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중증도 이상의 크론병에서는 스테로이드나 인플릭시맵(infliximab) 등의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다.

#### ● Obesity

과거에는 똥똥하면 다 키로 간다고 인식되었다. 한국 남성 평균 키가 160

대 초반이었던 시절이나 가능한 이야기다. 평균 키가 170대 중반인 현대에는 비만한 아이의 경우 조기성장에 따른 성장판의 조기 폐쇄로 예상 키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또한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게 될 뿐 아니라 성인 비만 환자와 마찬가지로 지방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관절통 및 고관절 질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소아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 개선과 적절한 운동이다. 인스턴트나 음료수 섭취를 금하고, 하루 30분~1시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다. 관절부담을 주는 줄넘기보다는 스트레칭, 유산소운동, 근력운동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의 경우 전문가의 개입과 각종 검사 및 상담이 필요하다. 초기 간수치가 정상이어도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간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훗날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혈액학적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다. 비타민 D를 비롯한 각종 영양상태, 당이나 지질 관련 검사를 시행해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토코페롤이나 각종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FDA나 국내에서 승인 약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사용은 가급적 보류하는 것이 좋다.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전문가를 찾아 목표를 세워 정기적으로 관

리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조절 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본인과 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된다.

소아청소년에서의 비만은 단순히

똥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성인에서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Jay Lee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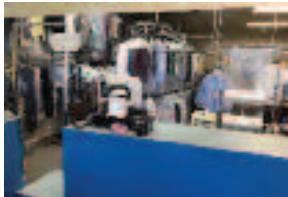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 |  |   |
|--|---|
|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b>SOLD</b>                             |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b>SOLD</b>             |
|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b>SOLD</b> |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b>SOLD</b>   |
|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b>SOLD</b>                  |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b>SOLD</b>       |
|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b>SOLD</b>         |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b>SOLD</b> |
| 5. Nail salon in Dedham <b>SOLD</b>                              |   |

금주의 LISTINGS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트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얼스톤 88 마켓 푸드 코트 안 성업중인 식당

ASKING \$187,5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

ASKING \$200,000



Brockton에 있는 30년된 "Meat Market" Lottery, Cigarettes, Grocery

ASKING \$95,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49,000



Dedham에 위치. Single Family House (7 bedr/4 bath, finished basement)

ASKING \$745,000

LISTINGS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Korean BBQ · Korean Buffet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요금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근로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임업진흥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스프링필드교회협의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웨스트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글로벌건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탕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짐승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김택은 Realtor	617-789-9330
백영주미용실	978-239-0141
송기백미용실	781-510-9924
송현미미용실	617-835-7664
순옥원미용실	508-737-8636
신현철미용실	617-947-6293
엘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미용실(EXT. 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Premier Ralty Group	617-642-3156

###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셈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드)내과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 아웃라이어가 되려면?

통계학 용어로 outlier는 대다수 분포 영역을 벗어나는 특별한 값을 말한다. 공동평가에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outlier이다. ‘모난 돌’이라고나 할까. 통계학에서는 이 용어를 ‘이상치, 극단치’로 옮기기도 하지만, 문학적으로 옮기자면 ‘군계일학’이나 ‘낭중지추’쯤이 되지 않을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듯, 뛰어난 재주는 감추려고 해도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는 말이다.

말콤 글래드스톤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Outlier>는 통계학적 용어를 일약 문학적 용어로 승화시킨 빼어난 책이다. 팔려온 노예의 후손인 말콤 글래드스톤은 그 자신이 아웃라이어가기도 하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흑인 작가 토니 모리슨과는 사뭇 다른 결의 울림으로 세계적 선풍을 일으킨 흔치 않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책에서 글래드스톤은 아웃라이어들의 여러 사례를 들고 있지만 특히 빌 게이츠와 비틀즈가 도드라진다. 이들의 성공비결을 작가는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비틀즈는 유명해지기 전에 독일을 오가며 수년간의 무명가수 생활을 했고, 빌 게이츠는 컴퓨터 시대를 선도하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 시절을 컴퓨터와 함께 보냈다고 한다. 한 분야

의 아웃라이어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의 연마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 등이 모두 1955년 생이며, 우리나라의 인터넷 거대 기업인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의 창업자들이 모두 86학번 동기이거나 친구들이며, 캐나다의 뛰어난 하키 선수들이 대개 1월생인 것은 노력이나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킨다. 한 마디로 아웃라이어는 노력과 환경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포드는 그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차 왕이 되었고, 카네기는 그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철강 왕이 되었으며, 빌 게이츠는 그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컴퓨터 제국의 일인자가 될 수 있었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각설하고, out은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주어진 공간의 밖을 의미한다. 돌출되어 밖으로 나간 모든 것에 관해 사용할 수 있다. 마실을 가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outing이다.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bring out이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은 speak out이다. 주문한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take out이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point out이다. 학회에서 참석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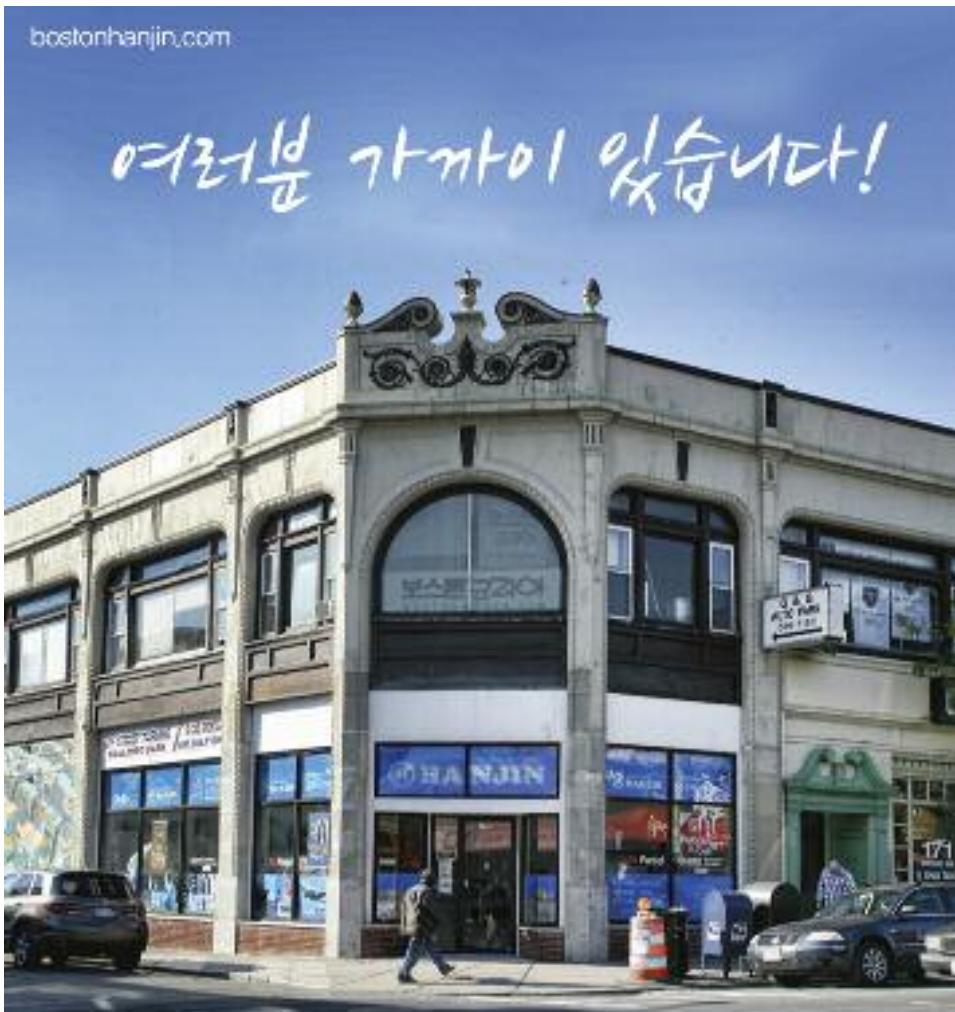
에게 나누어주는 발표 자료는 handout이고, 인쇄물은 print-out이다. outstanding은 ‘뛰어난’이고, outnumber는 ‘~보다 수가 더 많다’이며, outwit는 ‘속여 넘기다’란 뜻이다.

전에 들은 농담이 생각난다. 어떤 사람이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웬 남자가 들판에 자주 서있더라. 궁금증이 생긴 이 사람이 하루는 차를 세우고 그에게 다가와 왜 들판에 서있냐고 물었다. 그 사람 왈, “People say that I will win a Nobel prize if I am out-

standing in the field.” 웃기게 번역하자면, “사람들 말이 내가 들판에 나가 서있으면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해서요.” 이 농담의 펀치라인은 단어들의 이중적 의미에 있다. 즉 field는 ‘들판’이란 의미와 더불어 ‘분야’란 의미가 있고, outstanding은 ‘뛰어난’이란 뜻도 되지만 ‘밖에 서다’의 진행형이 될 수도 있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노벨상을 이 사람은 ‘들판에 나가서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Steve Jobs와 Bill Gates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ne's Doubly Parish of Korean Church

**성목요일 (3/29)**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3/30)**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3/31)**  
9pm-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1)**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56  
617-558-7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당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IT'S TIME TO TRAVEL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47**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2018년 26차 연례학술대회

일시: 2017년 5월 12일 (토) 8:00 am - 8:00 pm

장소: Harvard Medical School TMEC Walter Amphitheater  
260 Longwood Avenue, Boston, MA 02115

## Keynote Speakers



## Career development session

### 1. Pathway to Academia

- Jae-Hyuck Shim Ph.D. (Associate Professor, UMass)
- Yumi Kim, Ph.D. (Assistant Professor, Johns Hopkins)
- Kaitlyn Choi, Ph.D. (Assistant Teaching Professor, Georgetown U)
- Dohoon Kim, Ph.D. (Assistant Professor, UMass)

### 2. Pathway to Industry

- Haley Kim Ph.D. (Governance Operations Manager, Takeda)
- Soo-Hee Park Ph.D. (Investigator, Novartis)
- Elizabeth Paik Ph.D. (Senior Scientist, CRISPR Therapeutics)
- Min-Kyu Cho Ph.D. (Investigator II, Novartis)

### 3. Mentoring Lunch

- Lunch with experts in both Academia and Industry

등록 : <https://nebs2018annual.eventbrite.com>

1. Early Bird Registration (\$10): 4/28 까지

2. On-site Registration (\$25): 행사 당일

3. Poster abstract submission: 4/13 까지

\* 등록자 중 Poster Awards(\$100) 10명, Student Award(\$300) 1명 선정

**NEBS**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NEBS([www.nebskorea.com](http://www.nebskorea.com))는 미국 보스톤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신진 생명과학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 비영리 학술단체다. 하버드, MIT, 예일, 텡스, 브라운, 보스톤, 유펜 등 유수의 대학들과 보스톤 지역에 위치한 20여 개의 생명과학 연구소와 바이오벤처 등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생명과학자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스케치' 첫 리딩, 비x이동건x이선빈, 긴장감 넘치는 열연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정지훈과 이동건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스케치'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대본 연습 현장을 공개했다.

오는 5월 방영 예정인 JTBC 새 금토드라마 '스케치' (극본 강현성, 연출 임태우)는 정해진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사 액션 드라마. 연인을 잃은 강력계 에이스 형사와 3일 안에 벌어진 미래를 그림으로 '스케치' 할 수 있는 여형사가 함께 공조 수사를 펼치며 살인 사건을 쫓는다.

지난 3월, 서울 상암동 JTBC 본사에서 진행된 '스케치' 대본 연습 현장에는 임태우 감독과 강현성 작가를 비롯해 정지훈, 이동건, 이선빈, 정진영, 강신일, 임화영 등 주요 출연진이 참석했다. '스케치' 연출을 맡은 임태우 감독은 "즐거워 촬영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대본 연습도 가볍게, 마음 편하게 준비하신 것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채 대본 연습을 시작했다.

대본 연습 현장은 "장르물이지만 사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라는 임태우 감독의 말처럼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과 미래를 '스케치' 한다는 신선한 예지능력을 소재로 시작부터 강렬한 몰입도를 선사했다. 또한 사건 전개만큼이나 빠르게 캐릭터에 빠져든 배우들의 열연이 이어졌다.

우선 정지훈은 강력계 에이스 형사 강동수로 분해 대본 연습을 이끌었다. 강동수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결혼을 꿈꾸던 인물로 정지훈은 약혼자의 죽음을 예상하고도 지키지 못한 남자의 깊은 후회와 슬픔을 담아냈다. 이동건이 연기하는 특전사 중사 김도진 역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은 남자의 복수심을 진득하게 소화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두 남자의 대립은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미래를 그리는 형사 유시현 역을 맡은 이선빈은 예지능력을 활용해 스케치 속의 죽음을 막으려 동분서주하는 시현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특별한 예지능력은 작품 속 사건과 맞물리며 비현실적 소재와 현실적 사건의 시너지를 기대하게 했다. 정진영은 시현보다 강력한 예지능력을

가진 미스터리한 인물 장태준을 연기, 등장만으로도 극의 흐름을 좌우하며 무게감 있는 연기로 현장을 압도했다. 디테일한 연기로 선악을 규정할 수 없는 장태준이란 인물에 궁금증을 더했다.

또한 정지훈, 이선빈과 함께 나비 프로젝트라는 특별팀을 이뤄 수사망을 좁혀갈 강신일과 임화영의 존재감도 돋보였다. 나비팀의 총책임자 문재현의 강신일은 인자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보여주며 팀의 버팀목 같은 존재를 그렸다. 나비팀의 기술지원 담당 오영심 역을 맡은 임화영은 팀에게 필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자인 동시에, 시현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친인니 같은 면모를 동시에 보여줘 나비팀이 만들어갈 케미를 기대케 했다.

제작진은 "사랑하는 여자의 죽음이라는 참혹한 상황을 마주한 두 남자와 주변 인물들의 열연이 강력한 몰입도를 선사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귀띔하며, "섬세한 이야기에 화려한 액션까지 더해져 완성도 높은 드라마가 탄생할 것이다. 첫 방송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스케치'는 '에어시티' '민들레 가족' '짱패' '유나의 거리' 임태우 감독이 연출을 맡고, 드라마 '별순검 시즌3' '신분을 숨겨라' 영화 '임금님의 사건수첩'의 강현성 작가가 집필한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후속으로 오는 5월 방송될 예정이다. [aluemchang@news1.kr](mailto:aluemchang@news1.kr)

4월 15일 - 4월 21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웃을 일이 많아지니</b></p> <p>●운수:필요가 없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너무나 쉽게 제 몫을 해낼 것입니다. ●금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애정: 웃을 일이 많아지니 집안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5, 18일 길일, 17, 20일 주의.</p>	<p><b>소띠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b></p> <p>●운수:머리만 복잡하고 판단이 잘 안 되는 때입니다. 일단 잠시 쉬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호시탐탐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애정:남의 말보다 정작 중요한 가족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가족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 하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15, 19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범띠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b></p> <p>●운수: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쟁사회에서는 남보다 한 발 앞서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전: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 곳곳에 재물이 쌓여갑니다. ●애정:오로지 물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처럼 외식을 하거나 외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7, 20일 길일, 15, 19일 주의.</p>
<p><b>토끼띠   거리를 두고 보아야</b></p> <p>●운수: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못 보던 것도 보게 됩니다. ●금전:미리 계산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많으면 결보기에 남는 것 같아도 현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애정:상대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밖으로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속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6, 21일 길일, 17, 20일 주의.</p>	<p><b>용띠   큰 것을 얻게 되는</b></p> <p>●운수:새로운 계기가 생기면서 기대감도 커집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니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육식을 버리고 소를 희생시키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의외로 큰 것을 얻게 되는 운세이니 크게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다. ●애정:평소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까워지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6, 17일 길일, 15, 19일 주의.</p>	<p><b>뱀띠   돌아가는 상황부터 살펴야</b></p> <p>●운수:그 누구의 탓도 아니니 자책을 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차라리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금전:들어오는 것을 신경 쓰느냐고 빼져나가는 돈을 잘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입 못지않게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애정: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돌아가는 상황부터 잘 살펴야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5, 20일 길일, 16, 19일 주의.</p>
<p><b>말띠   대인관계를 넓히고</b></p> <p>●운수:이사나 이전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뭔가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전망이 밝은 일이 연결될 수 있으니 대인관계를 넓히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수입도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혼기를 앞둔 자녀를 둔 경우라면 좋은 흔치가 들 어올 때입니다. 자손으로 인해 기쁜 일이 있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6, 21일 길일, 15, 17일 주의.</p>	<p><b>양띠   인내심으로 버티야</b></p> <p>●운수: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나름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를 놓친 것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일이 꼬입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으로 버티야 합니다. ●애정: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0일 길일, 15, 19일 주의.</p>	<p><b>원숭이띠   사랑이 꽃을 피우는</b></p> <p>●운수: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꼭 잡고 있으면 순간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새로운 일이 연결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계약이나 거래로 인한 이득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사랑이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애정이 샘솟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9일 주의.</p>
<p><b>닭띠   뿌듯하고 기분 좋은</b></p> <p>●운수:어렵고 힘들 것이라 생각한 일도 거든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뿌듯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금전:다른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여보세요. 금전운이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으니 열심히 하는 만큼 얻는 것이 커질 것입니다. ●애정: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8일 길일, 16, 17일 주의.</p>	<p><b>개띠   아무리 급하더라도</b></p> <p>●운수:바늘하리에 실 묶어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응하다가 일을 두 번 하게 됩니다. ●금전:마음이 편치 않겠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애정: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냐고 할 말을 제대로 못하지 마세요. 차마 꺼내지 힘들었던 말도 이제는 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8일 주의.</p>	<p><b>돼지띠   옳고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b></p> <p>●운수:한번쯤은 관망했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는 정말 수습하기 어렵게 됩니다. ●금전: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애정:순간적으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후회를 남기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격한 말을 쏟아내서 상처를 주지 마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7, 21일 길일, 16, 19일 주의.</p>

## 구직

광고 문의 617-254-4654

4/6  
집 또는 오피스 청소 전문  
무료 견적, 20년 경험, 추천서 가능  
T. 781-289-5552

4/20  
웨스트보로 한국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레스 구함.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T. 508-366-8898

##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4/13  
매사추세츠 헤이버힐(Haverhill, MA)에 위치한  
Breakfast & Lunch Restaurant 매매합니다.  
Tel. 603-361-7350 (Mimi) 전화연락주세요.

### RETAIL DRY CLEANER FOR SALE

- 3 BOSTON LOCATIONS
- 1 PLANT PLUS 2 DROPS
- ESTABLISHED IN BOSTON
- MODERN EQUIPMENT
- GEORGE & COMPANY

CALL BROKER; JEFF LEFEBVRE  
TEL; (508) 864-4658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 '컴백' 트와이스 "부담스럽지만 기대 큰 앨범...韓 활동 기뻐"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미니 5집으로 컴백한 그룹 트와이스가 "부담스럽지만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트와이스는 9일 오후 4시 서울 광장동에 위치한 예스24 라이브홀에서 미니 5집 '왓 이즈 러브?'의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날 멤버들은 컴백에 대해

연이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박진영PD님과 작업했기 때문에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어 기쁘고 완전체로 한국 활동을 하게되어 팬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혔다. '왓 이즈 러브?'는 사랑을 책으

로 배운, 혹은 영화나 드라마로 배운 소녀들의 호기심과 상상을 다룬 댄스곡이다. 통통튀는 밝은 멜로디에 업템포 댄스비트와 트랩 장르를 넘나드는 리듬이 더해져 한 곡 안에서 다양한 음악적 변화들을 선보이는 노래다. 이번 컴백은 멤버들의 물오른 극강 비주얼과 더불어

어 JYP 수장 박진영이 직접 작사, 작곡한 타이틀곡으로도 더욱 화제다. '왓 이즈 러브?'는 미니 앨범임에도 선주문 35만 장으로 지난해 10월 첫 정규앨범 '트와이스타그램(twicetagram)'의 선주문량 33만장을 넘어선 기록을 수립했다. hmh1@news1.kr

## '한끼줍쇼' 탁재훈 "다음 생은 유재석으로 태어나고파"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탁재훈이 "다음 생에는 유재석으로 태어나고 싶다" 고 전했다. 위이동에서 진행된 녹화에서, 탁재훈은 '애드립의 황제' 라는 별명다운 재치 있는 입담으로 밥동무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 탁재훈이 쉴 새 없는 농담으로 밥동무들을 지치게 만들자, 급기야 이경규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려면 밥동무로 나오지마!" 라고 버럭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탁재훈의 지치지 않는 수다 본능을 지켜보던 강호동은 탁재훈에게 "다음 생에도 형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물었다. 이에 탁재훈은 1초의 고민도 없이 "아니, 유재석으로 태어나고 싶다" 라고 말했다. 이때 이휘재가 "그러면 형은 못 버티!"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자유분방한 캐릭터를 지닌 탁재훈의 의외의 답변과 그 이유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chi@news1.kr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 둥근 빛

오늘은 바늘로 A4 용지에 몇 개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날이다.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만 제외하고 구멍을 뚫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릴까? 오래 걸릴 것 같았지만 딱 한 시간 반이면 되었다. 남편은 은행 갔다가 마켓에 들러 우유와 밀가루 그리고 포도를 사 온다고 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세 시간 정도 걸린다. 남편이 적어놓은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지만 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그중 이 실험은 준비물도 간단하다. 세 시간을 보내기에는 딱 맞는 실험이다. 구멍을 뚫기 시작하면서 잡념도 사라졌다. 실험의 리스트는 156가지가 있었다. 3년을 살며 거의 해 보았고 실험의 과정과 결과는 기억되었다. 처음에는 78가지였는데 남편이 계속 개발하여 추가로 써넣었다. 안 해본 것 중 하나, A4 용지에 바늘로 구멍 뚫어서 한 장의 용지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이 놀이를 고른 것이다. 구멍을 내는 동안 창문의 유리를 관통하여 거실로 스민 빛 속에서 먼지들이 춤을 추는 것을 가끔 고개 들어 보곤 했다.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먼지는 바닥에 앉지 않으려고 량의 들숨과 날숨을 타고 눈앞에서 부유한다. 실험을 끝낸 후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량은 창밖을 내다 보았다. 눈 덮인 아파트 앞을 지나간 사람은 7명, 다람쥐 세 마리, 아래층 고양이가 잠시 주인 따라 나왔다가 들어가는 소리가 남은 한 시간 반 동안 있었던 일이다. 이 정도면 밖이 꽤 분주한 것이다. 이 시골 마을에 들어온 후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밖에 있는 시간보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계절이 몇 번 바뀌었는지는 별 의미가 없다. 밖은 넓은 미국 땅이지만 량에게는 좁은 중국의 집과 같았다. 하루 종일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던 날도 있었다. 그동안 고향의 상하이 골목을 떠 올리며 엄마, 친구 그

리고 이혼한 남편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엄마를 어려서부터 남처럼 여기는 아들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량의 등에 열이 차기 시작했다. 조금 더 진행되면 발작을 일으킬 것이다. 등 아래쪽부터 위로 서서히 열이 짙어오르면 손이 떨리고 눈을 깜박거리고 허기와 추위가 동시에 몰려오기 시작한다. 잡고 있던 정신의 끈이 툭 끊어지는 느낌을 뇌혈관에서 느낀다. 량은 심호흡을 시작한다. 새로운 땅을 밟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던 안식은 없었다. 량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 조금만 더 긴 실험을 선택할 걸 그랬다. 생각이 생각이 몰고 나오지 못하도록...’ 량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아파트 문 여는 소리가 오른쪽 복도 끝에서 난다. 신발을 꺾어 신고도 앞발을 먼저 놓는 남편의 특이한 발자국 소리다. 거짓말처럼 량의 등에서 열이 비워져 가고 곧 안정을 되 찾았을 때 환관 문이 열렸다.

“별일 없었지?”

남편이 묻히고 들어온 차가운 공기에서 냄새가 난다. 바람 냄새는 살짝 비리다. “네” 라고 짧게 대답하고 수프를 데우려고 스토브의 불을 켜다.

남편이 소파에 기대어 TV를 켜다. 굽어져 가는 등의 척추 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순간 눈을 찡그렸다. 머리카락도 거의 없다. 남편의 꼼꼼한 성품이 들숨들숨 해 지고 있는 몸의 여백을 대신 뻐뻐하게 채우고 있다. 그의 몸짓은 매 순간 계획적이다. 남편은 량의 공황장애 극복을 위한 계획을 치밀하고 세밀하게 세웠다. 하루 24시간의 계획표는 늘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량은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 대신 고요한 살의를 느끼고 있었다. 수프가 냄비 바닥에서 늘어붙고 자글거리며 타 들어가기 직전에 남편이 척추

를 비틀어 량을 바라보았다. 량은 남편의 표정을 보자 아무것도 못 한다. 때로 저 사람이 나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밟아버리려는 것인지, 실수를 바로잡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되었다. 그의 표정은 량을 밟고 있었고 목소리는 바로잡아 주고자 했다. 저벅 저벅 걸어와 불을 끄고는 량의 얼굴 가까이 그의 얼굴을 디밀고는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을 때야 량은 단 20초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 정돈되었다. 수프는 누린내가 나서 먹을 수 없었다. 다시 수프를 끓이려고 할 때 남편이 필요 없으니 옆에 와 앉자 뉴스나 같이 보자고 한다. 남편이 손을 만지작거리며 뉴스를 본다. 한없이 다정한 남자의 얼굴을 량은 한 번도 마주 보지 않고 TV에 눈을 고정하고 손만 그에게 맡긴다. 그가 서서히 량의 엉덩이와 가슴으로 손을 옮기자 그녀는 그제야 다정하게 그의 얼굴을 마주 본다.

“잠깐만... 나 베란다에 차 끓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는지 좀 보고 올게요.”

량은 남편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를 피해 뭐가 핑계를 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집 안에 장치해 놓는다. 빨래 돌리기, 차 끓이기, 곰국 끓이기, 행주 삶기 등등의 일들을 시간 사이사이에 끼워 놓고 늘 그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벗어날 여건을 구석구석 마련한다. 량이 하는 모든 방법은 모두 중국식 방법이라 남편은 종종 짜증을 낸다. 말을 못하는 량은 인형처럼 눈을 깜박이며 고개를 모로 켜고 남편 옆에서 부닌다. 강아지처럼 부닌다. 량은 남편의 계획이 순진하다고 생각한다. 무엇 때문인지 금방 파악되고 대처할 방법을 찾기에 시간도 넉넉히 주어진다. 아무리 치밀하고 세밀해도 그의 나이는 칠십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금은 숨죽이고 기다려야 한다. 량이 남편을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과 남편이 량의 무료함을 위해

개발한 놀이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아무리 량이 머리를 써도 밤은 다가오고 량은 번번이 그의 품 안에서 돌처럼 굳어진 자신을 향해 은밀하게 돌진하는 늑은 페니스에 속수무책이었다.

량은 아주 총명한 계집아이였다. 늘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다만 버릇없고 당돌한 아이로 불렸다. 너무 깎듯해서 답답한 도덕관과 사회주의가 딱 조인 옷을 입은 것처럼 목을 조여왔다. 그런 사회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사고는 위험했다. 량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동창생과 사랑에 빠져 섹스를 나누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임신으로 이어지고 결혼으로 연결되는 과정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때야 량은 자신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구속력으로 돌아왔는지 알았다. 아이를 지을 수도 없고 어린 남자는 생계에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임신이 량을 불안하게 했다. 량은 세계 곳곳의 풍경 사진을 모으며 그 풍경 속을 걷는 자신을 생각했다. 웃은 무엇을 입고 신발의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하는지를 상상하는 동안 량은 소녀였다. 임신이 상상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시작했다. 빛이 불러내는 기억의 입자들이 커다란 동굴을 만들고 고요하게 입을 벌리며 다가왔다.

(다음 호에 계속)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학사랑』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린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아리터처(koreanlit.com)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99

\*전상품 무약정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KBS MBC SBS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On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Dyson 청소기 및 공기청정기 구입시  
\$45상당 계란찜구이판 무료증정

# 이제 하이트론스에서 다이슨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이트론스 다이슨 딜러십 획득!

다이슨 제품 종합 전시장 오픈!

6개월 무이자 할부

**dyson v8 absolute**  
선이 없는 자유로움  
다이슨의 강력한 무선진공청소기 V8  
바닥 종류에 상관 없이 강력한 흡입력  
다이슨의 자랑, 소비자 만족도 1위

**dyson pure cool**  
다이슨 퓨어쿨 공기청정기는 유해한 오염 물질들을  
99.95% 잡아내 자동으로 방 전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ORDER NOW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781-862-6867** [www.hitrons.com](http://www.hitrons.com)  
Lexington, MA 02420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6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몰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몰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E2&E3,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시 플라자 필라자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Ellicott City)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인랜드트 매점 옆)  
**201-941-0010**

신영의 **세상 스케치**

64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제대로 된 '꿀값'이라야...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늘 즐겁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 시끄럽기도 한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음의 꿈틀거림이 아닐까 한다. 특별히 이민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모두가 '잘난 사람들' 그 누구 하나 '나 못났다'하는 사람은 보질 못했으니 말이다. 아마도 이민 오기 전의 한국에서의 생활은 모두가 내놓아라 하는 가정과, 직업과 생활을 누렸던 모양이다. 물론, 나 자신 역시도 내 것에 대한 사랑을 넘어 애착 내지는 집착에 이르는 것이기에 뭐 더 할 말이 있을까마는 그저 내가 제대로 못 이룬 꿈이 나마 자식이 내 꿈을 이뤄줬으면 싶은 바람이 솔직한 내 마음일 게다.

옛말에 '꿀값'이란 말이 있다. '꿀값 하고 있네!'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아주 기분 상하게 들리는 말이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일 게다. 하지만, 이 말을 오래도록 깊이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 가끔은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기에 "너는, 정말 네 꿀값을 제대로 하고 있니?"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정말, 얼마만큼 내 꿀값

을 하고 사는 것일까? "남들에게 좀 그런 말 들으면 어때?" 남을 의식하느라 제대로 된 내 꿀값도 못해보는 어리석음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꿀값을 찾기 위해 나를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남의 장점과 단점은 원하지 않아도 어찌 그리 잘 짚어 내면서도,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려면 제대로 찾는 것은 고사하고 짚짚매는 경우가 많다. 내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고 살아가는 것일까. 또한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전부일까. 내가 모르는 내가 또 있는 것이다. 내가 모르지만 남이 아는 내가 또 있으니 말이다. 만나면 만날 수록 이렇듯 오묘하고 신비롭다는 생각에 "어찌 사람의 마음을 이리도 아름답고 섬세하고 곱게 만들어 놓으셨을까?"하고 감탄하는 것이다.

때로는 보여주는 나, 보여지는 나, 비춰지는 나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을 곁에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여유롭고 편안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웅졸하고 속 좁은 사람'

이 되기도 한다. "나만 잘하면 되겠지!"하고 앞만 보고 가다가 작은 돌 뿌리에 채여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 그렇다면 진정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잘 사는 일일까. 돈 잘 벌고 출세하여 재물과 명예를 얻으면 편안하고 만족한 삶이며 멋진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하늘이 정해준 삶이 분명 있는 것이다. 어느 사람은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 불편함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세상에 대한 불만 가득히 살아가는 이들도 있기 마련이다. 특별히 가난이 불행을 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대 생활에서의 물질은 다른 생각(이성)들마저 마비시킬 만큼 위력을 행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꿀값'을 제대로 하고 싶어한다. 제 색깔과 모양 그리고 목소리만큼만 꿀값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정도에 지나칠 만큼 욕심을 내기도 한다.

진정한 '꿀값'의 의미는 아마도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겠지만, '꿀값'이란 것은 '얼굴 팔'을 의미하기도 한다 들었다. 제대로 된 '자기 모습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일컫는 말일 게다. 남을 의식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이나 자기 생각들을 나누지 못하는 일은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꿀값 하네?'란 그 말이 두려워 자기 자신을 누르며 참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이제는 나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나 자신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꿀값'을 제대로 하고 살면 어떨까. 자기 자신의 색깔과 모양과 그리고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낙천지명(樂天知命)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늘의 복'을 듬뿍 받은 인생일 것이다. 또한 내가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면 '남의 탓'은 아마도 줄어들지 않을까. 남의 말과 행동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어찌 남의 탓으로 흐르는 부정적인 '꿀값 하고 있네?'란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내 '꿀값'만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남의 '꿀값'은 봐 줄만 하지 않을까.



한담객설閑談客說: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나我라는 단어라 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한편 가장 흔할 것 같은 사랑이란 말은 사용빈도가 낮다고 했다. 말은 곧 존재일 터인데, 한국인에게 사랑이 아예 메마른 것인가? 그건 모르겠다.

학교적 한국사 시험시간 이었다. 오직 한 문제. '식민사관에 대해 논하라.' 답안지 한장 반 가량을 빠르게 써내려갔다. 서론 본론 형식을 맞추고자 했고, 들은바 대로 매듭지어 했다. 문제가 생겼다. 문맥상, 본론에서 결론으로 넘어갈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다. 끝수를 부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내 답안지 결론 첫머리를 시작하는 말이었다. 서론과 본론에 무

관하게 결론은 이러저러하다고 답안을 마무리했다는 말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지난 12월, 미국 국무장관이던 힐러슨이 제안했던 말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자.' 신문과 방송에선 파격이라고 했다. 이제 그의 제안도 빛을 잃었다. 일이 성큼 진행되고 있으니 말이다. 하긴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 없이'는 사뭇 다르다 했다. 자기들이 필요한건 논외로 하자는 말이라 하던가. 조건이 있는 무조건無條件인 거다. 핵문제는 빼고 조건없다 해야 할까? 아무튼 그리고 아무렴, 제발 남북문제는 봄날처럼 풀렸으면 한다.

시인 김수영이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를 꼽았다. 마수걸이, 에누리, 색주가, 은근짜, 굳것질, 총채, 글방, 서산대, 벼룻돌, 부싷물. 이 말중에 총채라는 말은 인상깊다. 아주 오래된 말이다. 먼지떨이개를 그렇게 불렀다. 마수걸이도 재미있다. 한편, 산문가 고종석도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를 밝혔다. 가시내, 서리서리, 그리움, 저절로, 설레다, 짝하다, 아내, 가을, 낯, 술, 그웁하다. 나라고 가만 있을 수는 없다. '아무튼, 어쩔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개 안되는 데, 부사副詞일색이다. 요샌 자주 옛생각에 잠기곤 한다. 세월이란 말이 머리에 가득찼는지도 모르겠다.

시인 박재삼의 시 중에 한줄이다.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제목만큼 시도 아름답다.

바람이 부는 날은  
별들은 갈대로 슬리고 있었다  
강가에서 머리카락을 날리는  
아름다운 사람아  
(박재삼, 아름다운 사람아)

아름다워라. 나 또한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이다. 이 말은 입에 올릴적에 더욱 아름답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한국말은 아름다움이란 단어이다. 이제 봄이니 목련도 곧 필것이다. 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할 것인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요 (시편 8:9)

# MAD CLOWN & SAN E

# WE WANT YOU

## 2018 TOUR

with SOBAE & DJ JUICE

APRIL 15  
SUNDAY

4:00PM EARLY ENTRY

4:30PM MEET & GREET

6:00PM SHOW

THE MIDDLE EAST

472-480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35 EARLY BIRD

\$50 GENERAL ADMISSION

\$120 MEET & GREET



STARSHIP  
ENTERTAINMENT

BRANDNEW  
MUSIC

Ticket info: [www.kamostudio.com/wewantyou](http://www.kamostudio.com/wewantyou)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34) 자산분배의 중요성

2009년 3월 이후 주식시장이 무려 320% (시카고 모닝스타 투자 연구회사) 상승했다고 합니다. 투자 100만 불이 400만 불 이상, 그야말로 4배 이상으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입니다. 그러던 주식시장이 새해 들어 플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많은 투자자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냐니 계속 시장이 폭락할 것 같고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욕심과 두려운 마음입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후회합니다.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는 100%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금융위기 때는 100%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이래저래 후회만 합니다. 사실 후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우연히 한, 두 번

은 맞을 수 있지만 반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래를 진정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우리와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시장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투자하면 잘못된 확률이 높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과거는 뚜렷하게 보입니다. 1926년부터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S&P 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0% (Ibbotson Associates)이며 연방 채권 (Intermediate-term US Treasury) 지수의 수익률은 6.75%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야만 돈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채권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수익보다는 자산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 종목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오르고 내리는 폭이 채권과 비교하면 훨씬 더 크다는 투자 위험 범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나온 기사를 인용합니다. “도대체 투자자는 어느 정도 바보인가? (Just How Dumb Are Investors?)” 라는 제목으로 제이슨 즈웨이그 재정칼럼입니다. 이 칼럼에 의하면 주식시장 자체의 수익률 (S&P 500 Index)은 11.1%이지만 투자자 자신의 수익률은 단지 3.7%였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자료는 1984년부터 2013년 말까지 30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1987년 주식시장 폭락을 비롯한 3번의 주식시장 침체기와 1990년대 말 주식시장 폭등과 최근 주식시장 회복 모두를 포함합니다.

투자자의 수익률이 적은 이유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 때문입니다. 대박을 기대하며 투자하고 폭락하면 털고 나오는 잘못된 투자 습관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고해야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

(Modern Portfolio Theory)'이며 줄여서 MPT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투자할 때 수익 (Return)은 최대화하면서 위험 (Risk)은 최소화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바로 '달걀을 같은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불문율을 이론적으로 검증하여 199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마코위츠의 개념입니다.

위의 개념을 이용해서 주식에 60%와 채권에 40% 자산분배를 형성합니다. 과거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8.7%가 되므로 100% 주식투자보다 수익률은 1.4% 낮습니다. 수익이 다소 떨어지지만, 투자 위험성은 거의 절반으로 적어집니다. 8.7%라는 수익률은 20년 동안 50만 불 투자가 250만 불로 불어나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며 결정하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본인의 나이, 자산 규모, 위험 부담률,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3 화랑세기花郎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1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공의 때에 낭도의 부곡部曲을 두었다. 좌우 봉사랑을 좌우대화랑으로 만들고, 전방봉사랑을 전방대화랑으로 만들어서 각각 3부의 낭도를 거느리게 했다. 또 진골화랑, 귀방貴方화랑, 귀문貴門화랑, 별방別方화랑, 별문別門화랑을 두었고, 12~13살의 빼어난 진골 및 대족大族, 거문巨門의 자제로서 속하기를 원하는 자로써 이를 삼았다. 좌화랑 2인, 우화랑 2인을 두었으며 각각 소화랑 3인, 묘화랑 7인을 거느렸다. 좌삼부는 도의道義, 문사文事, 무사武事를 맡았고, 우삼부는 현묘玄妙, 악사樂事, 예사藝事를 맡았다. 이에 제도가 천연히 갖추어졌다. 3년간 재위하고 비보랑에게 전했다. 공은 오랜 동안 아내를 맞지 않았다. 국선國仙이 됨에 이르러 윤궁양주를 받들어 내원內援으로 삼았다. 윤궁은 황종공의 딸이다. 그 어머니는 곧 미진부공의 친누이였으니, 미실궁주와는 종형제간이 되었다. 함께 동륜태자를 섬겨 윤실궁주를 낳았다. 과부로 5년 살았다. 흥제興濟 5년 10월 공이 지도황후의 명으로 국선이 되었고, 윤궁을 받들어 선모仙母로 삼았다.]

문노는 진지왕이 즉위한 576년에 풍월주가 되었다. 형식상으로는 진지왕의 비인 지도황

후의 명을 받든것으로 나오지만 문노는 사도 태후와 미실의 지원으로 풍월주에 올랐다. 진흥왕이 죽자 왕비 사도는 자신의 장남인 죽은 동륜태자의 장남 백정으로 왕위를 잇지 않고 차남인 사륜(진지왕)을 택했다. 그가 흥제 5년인 576년 8월에 즉위하였다. 그리고 문노는 정식으로 동년 10월에 8세 풍월주로 임명되었다. 문노는 늦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가 554년 김무력을 따라 관산성 전투에 참전할 때 벌써 17세였으니, 풍월주가 되었을 때는 39세였다. 사다함이 16.7세에 풍월주에 역임한 것과 비교해 보면 풍월주의 취임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올랐지만 혼인 역시 만혼을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풍월주가 된 뒤에 윤궁양주를 내원으로 삼았다. 내원은 처를 의미하지만 처음에는 아마도 신분의 격차로 부인의 역할보다는 국선의 부인이 갖는 화랑내부의 직책인 화주花主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둔 것 같다. 윤궁은 거칠부(황종)의 딸이다. 윤궁의 어머니는 말보末寶이다. 그리고 말보는 2세 풍월주를 역임한 미진부공의 친누이이다. 미진부와 말보의 가계를 보면 외할아버지는 법흥왕이고 외할머니는 벽화이다. 벽화는 당시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기에 비처왕이 경주에서 영주까지 잠행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다가 500년 궁으로

불러서 후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해 말, 지증왕이 왕위를 차지하고 (평화적인 교체보다는 방계였던 지증이 차지한 것으로 보아 정쟁/정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들인 김원종(후에 법흥왕)은 당대의 최고미인 벽화를 차지하였다. 이들 법흥왕과 벽화사이에서 삼엽궁주가 태어났으며, 삼엽이 '마복철성'의 한명인 아시공과 혼인하여 미진부, 골보, 실보 낭주, 그리고 말보를 낳았다. 그리고 미진부는 묘도와 사이에서 미실과 미생을 낳았다. 말보는 황종공(거칠부)과 결혼하여 윤궁을 낳았다. 그래서 윤궁과 미실은 내외종 자매간이다. 윤궁낭주는 처음에 동륜태자를 섬겼다. 그리고 딸 윤실을 낳았다. 그렇지만 동륜이 아버지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궁주의 치맛폭을 풀려고 월담을 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개죽음'을 하고 나서는 오랫동안 과부로 살고 있었다. 한편 문노는 마흔의 가까운 나이에도 미혼이었다. 그래서 늘 세종과 미실이 근심하였고, 비록 골품은 차이가 있었지만 미실은 자신의 내외종 자매인 윤궁과의 결혼을 권유하였다. 이에 그들은 신분을 뛰어넘어 결혼하였다. 윤궁은 풍월주의 아내이기에 화랑의 선모仙母가 되었다. 후일 문노는 윤궁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골품을 얻으며 신분이 상승되었다. 문노는

3년간 풍월주를 역임하고 부제인 비보랑에게 그 직위를 넘겼다. 비보랑의 아버지는 비대공이며 어머니는 실보낭주이다. 비대공은 법흥왕을 이어 왕이 될 뻔 했었는데 옥진궁주가 낳은, 즉 후궁이 낳은 전군이라서 왕위계승에서 밀려났고, 다음 선택으로 법흥왕은 정비의 딸인 지소를 박영실과 혼인시킨 다음 박영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 역시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후계를 정하지 못하고 곧 법흥왕은 죽었으며 결국 지소는 어린 아들에게로 왕위를 잇고 섭정을 하였다. 그가 진흥왕이며, 아버지는 법흥왕의 동생인 입종이다. 입종은 아들 삼맥종(진흥왕)이 어릴때 죽었다. 비보랑의 어머니 실보낭주는 윤궁의 어머니 말보의 자매이다. 즉 윤궁과 비보랑은 이종사촌간이다. 비보랑의 첫 부인 세진낭주 박씨는 상대등을 지낸 노리부의 딸이다. 그리고 세진이 죽은 후 맞이한 덕명궁주 김씨는 진흥왕의 딸인데 어머니는 가야국에서 진흥왕의 후궁으로 온 월화공주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 A+ Program Summer 2018

보스톤 No.1 아카데미 프로그램  
한 발 앞선 교육, 25년 노하우로 A+ 가 도와드립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 7월반: 7월 2일 - 7월 23일(7월 4일 휴강)
- 8월반: 7월 30일 - 8월 17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반: 9 AM - 12 PM
- 오후반: 2 PM - 5 PM
- FULL DAY: 오후 각종 활동/ 워크샵, 9 AM - 5 PM

## A+영어&수학반 (1-8학년)

A+ 영어와 수학 수업은 하버드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교사자격증을 갖춘 원어민 강사들과 A+ 의 전문적인 커리큘럼 및 교재를 통해 학생들의 독학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합니다.

## Writing / Public Speaking & Debate 연습반 (중학교 5-8 학년 & 고등학교 9-12학년)

이 수업은 읽기, 쓰기와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통해 학생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매끄럽게 표현하는 요령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에 집중합니다. 학생들의 심도 깊은 분석력과 창의력을 키움으로 개성있는 아이디어, 탁월한 단어 선택,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장들로 자신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고등수학반 (9-11 학년)

Algebra II, Geometry, and Pre-Calculus 과목별 수업은 A+ 교재를 통해 진행되며, 선생님들께서 평가 테스트를 통해 개인에 맞춘 학습능력 향상법을 지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 대학 입시 "Boot Camp" (11 학년)

A+에서 학생의 대학 입학에 도와드립니다. 상담을 통한 대학 선택에서부터, common application, 이력서, 개인 에세이 작성, 인터뷰 트레이닝, 추천서까지, 뛰어난 대학 입시 패키지를 학생 맞춤으로 준비해드립니다.

## 최고의 테스트 준비반이 최고의 결과를 만듭니다!

### ISEE | SSAT

중급 (5&6 학년), 고급 (7&8 학년)

해마다 A+ 학생중90%가 모두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입학하고 보스톤 라틴스쿨(BLS) 와 그외 명문 사립학교의 시험에서 상위권 점수 결과를 받습니다.

### SAT (9-11 학년)

A+의 25년 노하우가 학생들의 아이버리그 및 명문대 진학에 도움을 드립니다. SAT 점수를 평균 150에서 300점이상 향상합니다.

### TOEFL

미국에 처음 온 유학생을 위해 디자인된 수업입니다. 경험이 많으신 전문선생님이 많은 연습훈련과 실전시험에 대한 팁을 바탕으로 점수를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Locations & How to Apply

50 Sewall Ave.,  
Brookline, MA 02446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65 Harrison Ave, 6<sup>th</sup> Fl,  
Boston, MA 02111

Contact us at 617-730-3705 or 617-338-5288, or email to [aplusinfo@ascenglish.com](mailto:aplusinfo@ascenglish.com)

Website: [aplusprogram.com/summer-program](http://aplusprogram.com/summer-program)

Facebook: @aplusprogra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 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하는 한국인을 위한 세무 가이드(3)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2)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는 2년동안 미국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데...”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과 관련한 2년간 세금면제 이야기는 한미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는 ①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②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③면제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

**1. 누가 세금을 면제 받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미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 규정을 풀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의 거주자가

**둘째:** 미국 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해 초청되고

**셋째:** 그 초청목적이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또는 강의와 연구 둘 다)이어야 하고

**넷째:** 초청기간은 당초의 예정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섯째:** 미국에 온 주된 목적이 위 셋째 요건인 강의나 연구목적이어야 하며

**여섯째:** 면제대상 소득은 초청된 기

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소득에 한하며,

**일곱째:** 면제기간은 미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이다.

**초청당시 한국거주자여야함**

첫째 요건은 초청 당시 한국의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거주자’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한국세법과 미국세법에서 서로 자국의 거주자임을 주장하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판단함). 따라서 초청 당시 H비자나 F비자 등의 소지자로서 이미 한미조세조약 등에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미조세조약이란 한국 거주자의 미국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반대로 미국거주자의 한국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거주자인 사람의 미국 소득에 대한 미국에서의 과세문제에 대해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이내여야함**

넷째 요건은 당초 예정된 초청기간

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연구원 등은 아예 이 규정상의 면제대상자가 아니다.

즉, 처음부터 3년의 초청기간으로 입국한 연구원의 경우, 그 연구원은 당초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3년 전체 기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다시 말하면, 처음 2년의 소득은 면제해주고 그 이후 1년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2. 면제되는 소득은?**

면제소득은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이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한한다. 즉, 연구원이나 방문교수의 본래의 초청 취지에 맞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만 면제해 준다는 뜻이다. (단,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면제 안 됨).

따라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의 소득 중 연구나 강의에 대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예를들면, 인적용역 중 면제 대상이 아닌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방법은 연구원이나 방문교수등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resident alien/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에 따라 달라진다.

**3. 면제기간은?**

한국 거주자인 연구원 등이 미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면제된다. 즉, 2016년 10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한 연구원의 경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 까지의 소득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면제기간은 한국거주자였던 사람이 면제기간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면제기간 중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거나 이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2016년 10월 1일에 J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온 연구원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이고 2018년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는데, 이렇게 세법상 거주자가 된 2018년도에도 2018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Prime Motor Group

Fast, Fair & Simple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0 Down Leases!"**



**2018 Hyundai Sonata SE**

Lease: **\$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3,180



Automatic, FWD

**2018 Hyundai Elantra SE**

Lease: **\$12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19,045



Automatic, FWD

**2018 Hyundai Santa Fe Sport**

Lease: **\$1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7,745



Automatic, AWD

**2017 Hyundai Tucson Sport**

Lease: **\$21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4,140



Automatic, AWD

**2017 Hyundai Sonata Hybrid SE**

Lease: **\$21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7,385



Automatic, FWD

**2017 Hyundai Veloster Value Edition**

Lease: **\$23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2,310



Automatic, FWD



36 month lease with 10,000 miles per year. \$0 down. All lease prices exclude sales tax, title, \$650 acquisition fee and \$495 documentation fee. Taxes are additional. No security deposit.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Valued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vehicle distributed by Hyundai Motor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Competitive Coupon. Competitive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 See your local dealer for program details and list of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Valued Owner Coupon. All offers expire 04/30/2018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소식 (2018년 4월 둘째주)**

● H-1B

예상대로 올해 H-1B는 접수시작 5일 만에 배정된 쿼터 수 보다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되어 지난 4월 6일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H-1B는 6년 연속 접수 5일만에 신청이 마감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몇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는 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배정된 쿼터보다 2배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총 199,000 개가 접수됐고 2016년에는 236,000개의 H-1B가 접수됐었습니다.

● 복지혜택 수혜와 영주권 기각?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의 Public Charge (공적부담) 를 현재 보다 현저히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해 공적 정부 보조를 받은 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막는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최정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최정 법안으로 확정되더라도 최종 법안 확정 후에 받은 혜택만이 영주권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현행법상 공적부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의 공적부담을 판단하는 것은 이민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 즉, 나이, 건강상태, 교육수준, 급여, 재산, 기술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다음의 두가지 보조만 아니면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현금도움 또는 장기적인 혜택만 아니라면 공적부담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Section 8 Housing Vouchers,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보조, Affordable Care Act 를 통한 건강보험 등이 새로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

을 받은 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혜택을 이민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6개월 이상 수령한 자에 한해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한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본인이 아니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혜택 수혜가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는 최정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더라도 확정 후의 혜택만 고려대상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스페셜]**

**H-1B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4월 6일부로 올해 H-1B케이스마저도 매년 할당된 85,000개를 초과 접수하여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민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H-1B는 6년째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심사되는 셈입니다.

요즘 젊은 리더들 사이에서는 “To-do List” 대신 “Not-do List” 가 인기라고 합니다. “주말 내내 TV만 보고 있지 않기”, “생각하지 않고 물건 사지 않기”, “야식 먹지 않기” 등 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놓는다고 합니다. “To-do List” 의 경우, 길어서 시작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많은 연구들이 “To-do List” 보다는 “Not-do List” 가 목표 달성에 있어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4월-5월 “Not-do List” 는 “H-1B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기” 입니다.

H-1B 추첨은 4월 중순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추첨을 통과한 케이스들에 대해 이민국은 1-3주에 걸쳐 접수증(Receipt notice) 을 발송하지만,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없이 H-1B 패키지 전체를 고용주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반송시킵니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류하여 수만 개 서류 패키지의 반송작업을 하기 때문에 6

월 초순까지도 반송패킷을 기다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만일 추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서 활동하는 꿈을 접고 한국으로 바로 들어갈 생각을 하기 보다는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의 대안으로 가장 자주 고려되는 비자는 O비자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며 이후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H-1B는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까지만 사용가능한 제한이 있는데 비해, O비자는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적정임금(prevaling wage)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도 스폰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O비자는 적용 분야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방송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O비자 직업군으로는 건축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운동선수, 요리사, 뮤지션, 배우 등이 있습니다.

O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당사자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은 상이 몇 개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신문과 인터뷰가 최소 몇 건이어야 한다든지와 같은 조건 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O비자에 적합한지 여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O비자 외에도 E-2 Treaty Investor 비자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해보고자 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 라고 불리는 E-2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는 이민과 달리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적은 액수 투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이 함께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E-2배우자 또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창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H-1B를 신청했던 회사 또는 새로운 고용주가 E-2 기업일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 자

격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많은 외국계 대기업들은 외국에 있는 모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서 직원들에게 E-2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외국계 대기업 미국 자회사에서 H-1B를 신청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졌거나 거절될 경우 해당 회사가 E-2기업인지 확인해 보시고 합법 체류 기간 내에 E-2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랜시간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명인들의 성공 이야기는 그 좌절과 포기 순간에 다시 딛고 일어난다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1B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대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SONGLAWFIRM



트럼프가 걸어잠근

# H-1B

그 열쇠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 있습니다.

A.A.A. 전미이민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팀 
 YouTube 
 G 
 H-1B 법률상담

##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 기업 고객

국제법	소송
금융법	이민법
노동 및 고용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지적 재산법
부동산	프랜차이즈법
상법 및 M&A	

### 개인 고객

가정법	소송
노동 및 고용법	이민법
부동산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사고 상해	지적 재산법
상법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세금, 상속, 유언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SONGLAWFIRM.COM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옷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BOSTON Eds  
Boston Education World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미 프로그램

#### 1. SAT1,2/ AP 수업 특강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풀이 중심  
상시 참여와 주말 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2. 학과목 개인 수업 지도

영어, 수학,역사,과학,외국어  
경제,심리, 기타 과목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4월 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기간: 4/16(월)~4/26(토):6일

#### 1. SAT1/ SSAT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각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실전 연습 문제 풀이  
단기 Test Prep 확립

#### 2. SATII Subject Test

Math IIc, Chemistry, Biology, Physics

#### 3. AP 전과목 및 학과목 선행 학습 지도

### 2018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명확한 업무 처리

### 각종 경시대회 준비

수학 경시 대회  
(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Biology, Chemistry, Physics)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Ste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